

갈음과 다름: 《聊齋志異》의 〈曾友于〉 ‘재창작’ 연구

- 서사내용과 서사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

金明求*

◁ 목 차 ▷

- I. 들어가는 말: ‘창작’과 ‘재창작’
- II. 같지만 다른 세 작품: 《聊齋志異》의 〈曾友于〉, 《醒夢駢言》의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 《刪定二奇合傳》의 〈曾孝廉解開兄弟劫〉
- III. 서사형식과 줄거리의 변화: ‘문언’과 ‘화본’
- IV. 서사내용의 변화: ‘답습’, ‘확대’, ‘축소’
 - 1. 원작의 계승과 유지: ‘답습’
 - 2. 내용의 삼입과 확대: ‘외적인 확장’과 ‘내적인 심화’
 - 3. 서사 내용의 축소: ‘축약’과 ‘삭제’
- V. 나오는 말

I. 들어가는 말: ‘창작’과 ‘재창작’

중국소설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明·清代의 소설은 宋·元代뿐만 아니라 唐代 소설까지 대량으로 흡수하여 많은 ‘재창작’ 작품을 생산하였다. 明代 말엽부터 고조된 이러한 분위기는 당시 여러 사회적 원인으로 말미암아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갖게 되었다. 明代부터 시작된 출판인쇄술과 상업경제의 발전으로 인하여 문화적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소설 독자층이 폭넓게 형성되었으며, 통속문화의 급속한 발전과 확대로 인해 재창작의 기풍은 더욱 성행하였다. 清代에 이르러서는 독서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출판인쇄가 더욱 보편화됨에 따라 이전의 작품을 ‘이어 쓰는’ 작품들이 대대적으로 늘어났으며, 작품의 형식과 내용에

* 明知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副教授

있어서도 작품의 수적 증가에 못지않게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大作을 계승하여 續作을 출간하는 것은 明·清代 소설 창작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되었다.¹⁾ 예를 들면, 馮夢龍은 余邵魚의 《列國志傳》를 참고하여 《新列國志傳》를 지었고, 蔡元放은 馮夢龍의 《新列國志傳》에 침삭을 가하고, 주석과 평점을 달아 《東周列國志》를 지었다. 陳忱의 《水滸後傳》과 俞萬春의 《結水滸傳(蕩寇志)》은 施耐庵의 《水滸傳》을 이어서 창작하였다. 天花才子가 평한 《後西遊記》, 蘭茂의 《續西遊記》, 董說의 《西遊補》, 무명씨의 《天女散花》 등은 모두 吳承恩의 《西遊記》에 영향을 받아 지어졌다. 張勻의 《玉嬌梨》, 丁耀亢의 《續金瓶梅》와 《金屋夢》, 무명씨의 《隔簾花影》 등도 蘭陵笑笑生的 《金瓶梅》의 영향을 받았다.²⁾ 대부분의 續作은 이전 작품의 줄거리를 잇거나, 서술과정이나 결말을 바꾸어 창작하였다. 간혹 이들 작품은 주제와 의미를 다른 방향으로 바꾸거나, 이야기를 확대, 새로운 인물형상을 등장시키기도 하였는데, 전체적으로 원작의 줄거리와 연관시키거나 작품의 중간 혹은 말미에 이어서 이야기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續作, 模作, 改作 등은 '재창작'의 범위에 해당되는데, 문학에서의 '재창작'은 전통을 계승하는 '모방'과 새로운 것을 만드는 '창작'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작품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인 '재창작'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대의 문학예술에서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창작 개념인 '순수창작'과 기존에 존재한 것을 개편하는 동시에 창작의 요소를 추가한 '재창작'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³⁾ 그러

- 1) 한국중국소설학회 편, 《중국소설사의 이해》(학고방, 2009년), 193쪽 참조.
- 2) 한국중국소설학회 편, 《중국소설사의 이해》(학고방, 2009년), 141-142쪽; 164-167쪽; 193-194쪽; 212-213쪽 참조.
- 3) 이진우는 그의 석사논문 《唐 傳奇를 '재창작'한 《三言》의 '통속화'연구》에서 '재창작'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재창작이란 '이미 있는 것을 고치거나 새로운 방식을 써서 다시 만들어 내는 것'이라는 재창조의 사전적 의미를 작품에 한정시킨 것으로, 작가가 자신의 사상과 독자의 요구, 시대적 변화 등의 내적·외적 요소들을 원작에 가미하여 새로운 작품으로 재구성하는 창작 방식을 지칭한다. 즉, 작가가 원작을 모방하는데 그치지 않고, 구성이나 내용에 추가·삭제·변형 등을 가하여 새롭게 창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 원작을 모방하지 않는 형식은 재창작이 아닌 창작이기 때문에 재창작에 있어 모방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재창작의 정확한 범위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전대의 문학예술을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창작 개념인 '순수창작'과 기존에 존재하는 것을 모방하는 동시에 창작의 요소를 추가한 '재창작' 그리고 창작의 요소가 가미되지 않은 '베끼기'만이 존재하는 '모방'의 개념을 파악하여 그 경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모

나 이러한 '순수창작'과 '재창작'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재창작'의 개념은 시대별, 지역별, 장르별로 다양한 정의로 인식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느 한부분에 치우쳐 이해하기는 힘들다. 비록 '재창작'의 개념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복잡하지만, '再創作'이라는 어휘에서 드러나듯이 '再(重)'에 좀 더 치중한다면, '續作'이나 '模作' 보다는 '改作'이 '재창작'의 의미에 좀 더 근접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고전소설에서 '재창작'의 서사형식은 주로 '續寫', '模寫(擬寫)', '重寫'로 나타난다. 이것은 '續作', '模作', '改作'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특징이다. '續寫'는 어떤 작품에 다시 이어쓰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順續', '逆續', '截續', '連續' 등이 있다.⁴⁾ 일반적으로 원작의 말미나 서두 혹은 중간에 이어 쓰거나, 또는 원작의 구성에 따라 새로운 내용을 첨가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⁵⁾ '模寫(擬寫)'는 원작의 줄거리와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나, 비슷한 주제, 인물, 줄거리 구성을 가지고 서술하는 방식을 말한다. 비록 유사한 내용과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원작의 구성과 모티브만 가져 왔을 뿐, 다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고전소설에서의 '模作'은 대부분 문체의 형식에는 변함이 없이 소재, 인물, 장소, 배경 등을 바꾸거나 모방하는 정도이다. '重寫'는 '다시 쓰기'를 말하는 것인데, 여러 동기로 인하여 작가가 여러 문체를 사용하여 원본의 제재와 서술방식, 인물형상과 관계, 분위기, 어휘 등의 요소를 다시 서술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⁶⁾ 만약 '重寫'를 원작을 다시 쓰는 것으로 한정한다면,⁷⁾ '改作'의 특징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방은 '답습'이 아닌 '발전'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표절'은 원작과 후작의 내용과 형식상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답습'에 그친다. 따라서 '표절'은 재창작의 요소가 될 수 없고, '모방'은 재창작의 요소로 인정된다. 이진우, 《唐傳奇를 '재창작'한 《三言》의 '통속화 연구》(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0년2월), 15-20쪽 참조.

- 4) 順續, 逆續, 截續, 連續 등, 續寫의 종류와 함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李忠昌, 《古代小說續書漫話》(遼寧教育出版社, 1993年), 22-38쪽 참조.
- 5) 李忠昌, 《古代小說續書漫話》(遼寧教育出版社, 1993年), 22쪽 참조.
- 6) “所謂重寫, 指的是在各種動機作用下, 作家使用各種文體, 以復述、變更原文本的題材、敘述模式、人物形象及其關係、意境、語辭等因素為特徵所進行的一種文學創作. 重寫具有集接受、創作、傳播、闡釋與投機于一體的複雜性質.” 黃大宏, 《唐代小說重寫研究》(重慶出版社, 2004年), 79쪽 참조.
- 7) 이진우는 그의 논문에서 '重寫'는 기본적으로 원작을 '다시 쓴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원작의 어떤 부분을 다시 쓸 것인지에 대한 범위는 한정되어 있지 않다고만 지적하

할 수 있다. '改作'은 이전의 작품을 다른 시각으로 서술한 작품을 말하는데, 원작의 내용과 구성을 그대로 이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줄거리를 재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줄거리 변화와 더불어 원작의 인물을 다른 인물로 교체하거나, 서사방식의 변화를 가져오거나, 줄거리의 확대, 축소, 생략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비록 작품의 줄거리 진행과 인물형상, 서사방식에서 변화가 생겨나지만, 근간이 되는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 전체적으로 원작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창작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국고전소설에서 이전의 작품을 바탕으로 내용을 각색하거나, 이어 쓴 작품, 영향을 받아 비슷한 내용과 구성으로 쓴 작품은 대량으로 출현하지만, 같은 작품을 문체(문언문↔백화문)를 바꾸어서 다시 쓴 작품은 전자에 비해 많지 않다.⁸⁾ 明·清代의 작품이 간혹 문언문으로 창작되었지만 대부분의 작품은 당시의 백화문으로 쓰여졌다. 明·清代 소설이 비록 고대의 민간전설, 唐 傳奇소설의 내용과 주제를 흡수하면서 원작과는 다른 문체(백화문)로 기술되었는데, 이것은 고대 민간전설과 唐 傳奇소설은 당시의 주요 문체인 문언문으로만 쓰여 졌으며, 宋·元代 혹은 明·清代의 소설로의 재창작에는 자연히 주류문체인 백화문으로 쓰여 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清代 玉山主人의 《雷峰塔奇傳》은 문언문으로 쓰인 필기소설인 《白蛇傳》을 근거로 하고, 백화문으로 쓴 《西湖三塔記》와 《三言》의 《白娘子永鎮雷峰塔》의 고사

고 있다. 따라서 '重寫'에는 재창작·과생·재서술(重述)·改作·續寫·방작(倣作)·의작(擬作)·축약(縮寫)·확장(擴寫) 등이 포함하므로 '重寫'의 범위는 다른 '재창작' 관련 용어보다 더욱 더 포괄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重寫'라는 개념에서 단지 '다시 쓴다'는 것에만 치중하여, 다른 구체적인 서술방식과 창작방식을 모두 아우른다고 본 듯하다. 그가 '重寫'의 정의를 '재창작'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데 반해, 필자는 '재창작'의 개념이 순수창작을 제외한 일체의 것을 포괄적인 상위개념이고, 하위개념에는 구체적인 창작방식인 '重寫'를 비롯하여 續寫·模寫(擬寫)·縮寫·擴寫 등이 있다고 본다. '重寫'는 비교적 외형적인 '다시 쓰기'에만 치중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재창작'은 이 뿐만 아니라, 내용과 주제 등 내적인 부분을 다시 쓴다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창작'의 개념이 '重寫' 보다 좀 더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重寫'에 대한 개념은 이진우, 《唐 傳奇를 '재창작'한 《三言》의 '통속화'연구》(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0년2월), 26-28쪽 참조.

- 8) 明·清代에는 이전 시기의 작품을 회곡으로 개작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당시 독자들에게 있어서 비록 회곡이 소설과 거의 같은 부류로 인식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설과 회곡은 장르상의 차이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특징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본 논의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를 개편하여 지은 것이 좋은 예이다.⁹⁾ 또한 원작을 改作하면서 원작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어느 정도 다시 쓰기를 하였기 때문에 문체의 변화와 동시에 내용의 변화도 어느 정도 일어나게 되었다. 물론 이것은 창작된 시대와 저술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일부 작품은 소재의 유사성에 기인하여 이야기를 확대, 발전하면서, 문체를 바꾸는 경우가 생겨났지만,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간의 간극이 크지 않는 同時代에 출현한 작품을 문언문에서 백화문으로 재창작한 경우는 거의 없다.

작품을 개작할 때에 나타나는 문체 변화는 唐 傳奇소설과 《三言》의 일부 작품의 전승관계에서도 잘 알 수 있다.¹⁰⁾ 馮夢龍(1574-1646)은 《三言》을 창작, 편집할

9) 한국중국소설학회 편, 《중국소설사의 이해》(학고방, 2009년), 189-190쪽 참조.

10) 唐 傳記소설 중에서 《三言》으로 '재창작'된 작품과 이에 해당하는 《三言》의 작품으로는 入話 9편, 正話 18편이 있다.

〈표 1〉 唐 傳奇소설을 '재창작'한 《三言》 入話 작품

唐 傳奇	明代 《三言》
《撫言》〈裴度〉	《喻世明言》 第9卷 〈裴晉公義還原配〉 (入話)
	《醒世恒言》 第18卷 〈施潤澤灘關遇友〉 (入話1)
《玉溪編事》〈黃崇嘏〉	《喻世明言》 第28卷 〈李秀卿義結黃貞女〉 (入話3)
《甘澤謠》〈圓觀〉	《喻世明言》 第30卷 〈明悟禪師趕五戒〉 (入話)
《玉泉子》〈杜羔妻〉	《喻世明言》 第35卷 〈簡帖僧巧騙皇甫妻〉 (入話)
《本事詩》〈崔護〉	《警世通言》 第30卷 〈金明池吳清逢愛愛〉 (入話)
《三水小牘》〈非煙傳〉	《警世通言》 第38卷 〈蔣淑真勿頸鴛鴦會〉 (入話)
《異聞集》〈李娃傳〉	《醒世恒言》 第3卷 〈賣油郎獨占花魁〉 (入話)
《博異記》〈崔玄微〉	《醒世恒言》 第4卷 〈灌園叟晚逢仙女〉 (入話)
총: 8편	총: 9편

〈표 2〉 唐 傳奇소설을 '재창작'한 《三言》 正話 작품

唐 傳奇	明代 《三言》
《談賓錄》〈馬周〉 《定命錄》〈賣鮑媼〉	《喻世明言》 第5卷 〈窮馬周遭際賣鮑媼〉 (正話)
《玉堂閑話》〈葛周〉	《喻世明言》 第6卷 〈葛令公生遭弄珠兒〉 (正話)
《紀聞》〈吳保安〉	《喻世明言》 第8卷 〈吳保安棄家贖友〉 (正話)
《玉堂閑話》〈裴度〉	《喻世明言》 第9卷 〈裴晉公義還原配〉 (正話)
《續江氏傳》〈歐陽紇〉	《喻世明言》 第20卷 〈陳從善梅嶺失渾家〉 (正話)
《續玄怪錄》〈張老〉	《喻世明言》 第33卷 〈張古老種瓜娶文女〉 (正話)
《朝野僉載》〈榼頭師〉	《喻世明言》 第37卷 〈梁武帝累修歸極樂〉 (正話)

때에 唐 傳奇소설과 고대전적을 어느 정도 인용, 改作하여 話本소설로 바꾸었다. 문언문에서 白話문으로의 改作이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明代 《三言》이 唐 傳奇소설을 모방한 것과 清代 《醒夢駢言》과 《刪定二奇合傳》이 《聊齋志異》를 모방한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진다. 唐 傳奇소설이 《三言》의 소재가 된 것은 《三言》을 창작, 편집할 때에 이전의 전적에서 소재를 취한 경우가 많고, 馮夢龍의 개인적인 문학과(창작과 재창작)이 보다 중요한 작용을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唐代와 明代는 서로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존재하므로 같은 작품을 모작하거나 속작하는 것과는 달리, 다른 문체로 동시에 '재창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明代 話本소설은 白話문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唐 傳奇소설 작품을 원용, 개작할 때는 자연적으로 당시의 白話문으로 창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清代 문언소설인 《聊齋志異》를 白話문으로 재창작하는 것은 서로 다른 시대에서의 재창작과는 상당히 다르다. 일단 문체를 비교하면 문언문에서 白話문로 바뀌었고, 내용 역시 기존의 줄거리를 계승하면서, 세부적인 묘사와 인물, 사건을

《松窗錄》〈李龜年〉 《本事詩》〈李白〉	《警世通言》第9卷〈李謫仙醉草嚇蠻書〉(正話)
《原化記》〈崔尉子〉	《警世通言》第11卷〈蘇知縣羅衫再合〉(正話)
《博異志》〈李黃〉	《警世通言》第28卷〈白娘子永鎮雷峰塔〉(正話)
《廣異記》〈勤自勵〉	《醒世恒言》第5卷〈大樹坡義虎送親〉(正話)
《靈怪錄》〈王生〉	《醒世恒言》第6卷〈小水灣天狐貽書〉(正話)
《河東記》〈獨孤遐叔〉	《醒世恒言》第25卷〈獨孤生歸途鬧夢〉(正話)
《續玄怪錄》〈薛偉〉	《醒世恒言》第26卷〈薛錄事魚服證仙〉(正話)
《原化記》〈義俠〉	《醒世恒言》第30卷〈李汧公窮邸遇俠客〉(正話)
《續玄怪錄》〈杜子春〉	《醒世恒言》第37卷〈杜子春三入長安〉(正話)
《集異記》〈李清〉	《醒世恒言》第38卷〈李道人獨步雲門〉(正話)
《摭言》〈王勃〉	《醒世恒言》第40卷〈馬當神風送滕王閣〉(正話)
총: 20편	총: 18편

唐 傳奇소설 《摭言》의 〈裴度〉가 재창작되어 《喻世明言》 第9卷 〈裴晉公義還原配〉(入話)와 《醒世恒言》 第18卷 〈施潤澤灘闕遇友〉(入話1)로 저술되었는데, 이 작품들은 서로 다르게 재창작되었다. 唐 傳記소설과 《三言》의 전승관계를 나타내는 <표 1>과 <표 2>는 黃大宏, 《唐代小說重寫研究》(重慶出版社, 2004年), 346-349쪽; 조영규, 《三言》故事의 淵源 및 影響考》(《中國學報》 第21輯, 1980년), 27-29쪽; 이진우, 《唐傳奇를 '재창작'한 《三言》의 '동속화' 연구》(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0년2월), 10-13쪽을 참고하였다.

다양하게 삽입하거나 과감하게 생략하였다. 唐傳奇소설과 《三言》의 계승, 개작의 관계에서는 비교적 긴 역사적 간극이 존재하지만, 《聊齋志異》와 그 화본소설작품인 《醒夢駢言》, 《刪定二奇合傳》은 동일한 시대에 재창작되었다. 唐傳奇소설과 《三言》의 관계가 서로 다른 시대, 다른 문체, 다른 시각의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면, 동시대의 소설 창작 환경 속에서 동일한 작품을 다른 문체로 재창작한 과정은 중국 소설사에 있어서 상당히 특별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일부 연구자들이 이러한 특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 왔지만, 대부분 《醒夢駢言》의 작품이 《聊齋志異》에서 소재를 취하여 재창작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 세부적인 내용에는 줄거리 전개, 소재의 운용, 주제사상의 상관관계를 밝히거나, 또는 인명의 변화, 판본 고증, 방언 자료 등을 고찰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¹¹⁾ 이러한 연구들은 어느 한 작품에 대한 세밀하고 체계적인 분석보다는 전체적인 개작상태에 대해서 집중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그 분석 또한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에만 한정하고 있다. 한 작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세 작품을 연계하여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다. 비록 이러한 연구들이 《聊齋志異》의 '재창작' 과정을 이해하는데 일정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 분석내용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여전히 한계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소설사에서 보기 드문 현상인 동일한 시대에 창작된 세 작품을 통해 문언문에서 백화문으로 개작하는 과정을 비교함으로써 그 서사 내용과 묘사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며, 그 속에서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 수사적 기교와 구조의 상관관계를 밝혀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세 작품의 창작 경향과 이에 대한 재창작을 서로 비교 고찰할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어떤 차이와 변화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聊齋志異》의 〈曾友于〉, 《醒夢駢言》의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 《刪定二奇合傳》의 〈曾孝廉解開兄弟劫〉의 비교과정에서 서사내용과 구

11) 王恒展, 〈淺論《聊齋志異》與話本小說的關係〉, 《蒲松齡研究》, 1997年第2期; 陳泳超, 〈《醒夢駢言》摹襲《聊齋志異》考〉, 《明清小說研究》, 1997年第3期; 丁曉昌, 〈試論《醒夢駢言》取材於《聊齋志異》〉, 《南京師大學報》, 1999年第3期; 方兆平, 〈略論《醒夢駢言》對《聊齋志異》的改編〉, 《語文學刊》, 2008年1月; 鄒宗良, 〈《醒夢駢言》與吳方言—兼論蒲松齡不是該書的作者〉, 《蒲松齡研究》, 2009年第2期; 李軍鋒, 〈試論宋元話本小說對《聊齋志異》的影響〉, 《西昌學院學報·社科版》, 2010年3月; 陳文新, 〈從宋元話本到《聊齋志異》—論講唱文學對文言小說滲透〉, 《學術交流》, 2010年7月 참조.

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세 작품의 비교에는 이러한 점 이외에도 인물형상의 재창조, 언어운용의 다양화, 주제구현의 방식, 서사전략의 변화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작품의 비교연구에서 이러한 현상이 모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나타난다고 해도 일부분만 드러나는 경우도 많다. 필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세 작품의 경우에서도 그러하다. 본 논문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세 작품에는 인물형상과 언어운용의 변화가 일부만 드러나지만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며, 주제구현의 방식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서사내용과 구조의 변화는 다른 현상보다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난다. 또한 문인소설에서 백화소설로 재창조되는 과정에서는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패턴이나 양상 혹은 이전시기 작품의 유사한 양상이나 타 작품 등과의 비교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이 세 작품의 차이가 분명해지고, 그 속의 특수한 의미가 드러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도출해내기가 상당히 힘들다. 왜냐하면 문인소설에서 백화소설로 재창조되는 과정에서 작품서술의 환경, 사회문화적 배경, 작가의 창작관에 따라 작품마다 각각 다양한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으로 여기기에는 많은 한계를 지닌다. 설령 이러한 특징을 공통적인 현상으로 여기고 실제 작품의 비교에 적용한다고 해도 수많은 예외의 경우가 나올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曾友于〉를 다른 두 작품으로 개작하는 과정에서 서사내용과 구조 변화에 한정하여 어떠한 특징들이 나타나며, 작품 간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II. 같지만 다른 세 작품: 《聊齋志異》의 〈曾友于〉, 《醒夢駢言》의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 《刪定二奇合傳》의 〈曾孝廉解開兄弟劫〉

《醒夢駢言》과 《刪定二奇合傳》은 500여 편이 되는 《聊齋志異》 작품 중에서 귀신, 요괴, 이물, 저승 등 기괴한 소재를 제외하고 현실생활의 소재를 다룬 일부 작품을 화본소설로 개작하였으며, 모두 강한 유교적 교훈성을 띠고 있다. 《醒夢駢言》

에는 《聊齋志異》의 12편 작품이 실려 있고, 《刪定二奇合傳》에는 2편이 실려 있다.¹²⁾ 구체적인 작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聊齋志異》[原作]		《醒夢駢言》		《刪定二奇合傳》	
卷十一	〈陳雲棲〉	第一回	〈假必正紅絲夙系空門 偽妙常白首永隨學士〉		
卷二	〈張誠〉	第二回	〈遭世亂咫尺拋鸞侶 成家慶天涯娶雁行〉		
卷二	〈阿寶〉	第三回	〈呆秀才志誠求偶 俏佳人感激許身〉		
卷十一	〈大男〉	第四回	〈妒婦巧償苦厄 淑姬大享榮華〉		
卷十一	〈曾友于〉	第五回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	第三十四回	〈曾孝廉解開 兄弟劫〉
卷四	〈姊妹易家〉	第六回	〈違父命孽由己作 代姊嫁福自天來〉	第三十六回	〈毛尚書小妹 換大姊〉
卷十	〈珊瑚〉	第七回	〈遇賢媳虺蛇難犯 遭悍婦狼狽堪憐〉		
卷十	〈仇大娘〉	第八回	〈施鬼蜮隨地生波 仗神靈轉災爲福〉		
卷三	〈連城〉	第九回	〈倩明媒但求一美 央冥判竟得雙姝〉		
卷三	〈小二〉	第十回	〈從左道一時失足 納忠言立刻回頭〉		
卷三	〈庚娘〉	第十一回	〈聯新句山盟海誓 詠舊詞璧合珠還〉		
卷三	〈宮夢弼〉	第十二回	〈埋白石神人施小技 得黃金豪士振家聲〉		
12 篇		12 篇		2 篇	

12) 《醒夢駢言》의 12편과 《刪定二奇合傳》 2편의 작품 모두를 《聊齋志異》의 작품과 상세히 비교하는 것은 자료 조사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나 논문의 편폭에 있어서도 한계를 가진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醒夢駢言》의 12편 작품에서 《聊齋志異》와 《刪定二奇合傳》에 공통적으로 실려 있는 〈曾友于〉를 통해서 《聊齋志異》의 〈曾友于〉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화본소설로 改作(重寫)되었는지 고찰하면서, 작품들 간의 상호 연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刪定二奇合傳》에는 〈曾友于〉 외에도 〈姊妹易家〉가 실려 있지만, 〈姊妹易家〉에 대한 논의는 다음 논문으로 미루고자 한다.

《聊齋志異》가 《醒夢駢言》과 《刪定二奇合傳》으로 재창작되는 과정에서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聊齋志異》에 수록된 500여 편의 작품 중에서 특별히 12편(《刪定二奇合傳》은 2편이나 《醒夢駢言》과 중복 됨)을 선별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해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지만, 《醒夢駢言》과 《刪定二奇合傳》의 작가는 《聊齋志異》의 기이하고 신비한 이야기보다, 현실적인 내용을 보다 더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12편의 작품이 모두 귀신이나 요괴와 연관이 없는 지극히 인정적인 면과 도덕적인 면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다. 《聊齋志異》가 비록 귀신이나 요괴, 이물을 주요 제재로 하고 있지만, 《聊齋志異》의 모든 작품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일부 작품은 世俗, 人情의 경향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醒夢駢言》과 《刪定二奇合傳》의 작가는 《聊齋志異》의 기이하고 괴이한 내용을 긍정하면서도 그것에만 빠지지 않고, 기괴한 이야기에 비해 지극히 일상적인 내용의 작품을 선별한 듯하다.

《聊齋志異》의 작품에서 현실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재창작된 화본소설 중에서 〈曾友于〉는 문언소설과 백화소설과의 비교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이다. 먼저, 《醒夢駢言》과 《刪定二奇合傳》에서 《聊齋志異》의 작품을 재창작하여 공통적으로 실고 있는 작품은 〈曾友于〉와 〈姊妹易家〉이다. 이 중에서 비교적 '重寫'의 현상이 두드러진 것은 〈曾友于〉이다. 〈曾友于〉의 줄거리는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다양하고 굴곡된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다. 〈曾友于〉는 단순한 줄거리의 전개보다 여러 사건과 인물이 열기설기 엮여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曾友于〉가 어떤 방식으로 재창작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聊齋志異》의 〈曾友于〉는 《醒夢駢言》과 《刪定二奇合傳》에 공통으로 실려 있으므로 화본소설로 개작하는 과정에서 《醒夢駢言》과 《刪定二奇合傳》이 동일한 텍스트를 어떻게 '重寫'했는지도 효과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둘째, 《聊齋志異》의 저자인 蒲松齡(1640-1715)은 비록 귀신, 요괴의 소재를 자주 운용하였지만, 또한 스스로 효와 우애를 중시한 문인이기도 하다. 그는 어려서부터 유교 교육을 철저히 받아왔으며 황당무계하고 기이한 비현실적 현상을 믿는 한편, 동시에 유교의 현실적인 윤리도덕을 강조하고 선양하는 상반된 문학관을 가지고 있다.¹³⁾ 《聊齋志異》의 작품은 비현실적인 내용이 주류를 이루지만, 기괴함

13) 張光興, 〈蒲松齡與中國的“孝”文化傳統〉, 《聊齋志異研究》(1997年第1期), 5쪽 참조.

의 이면에는 유교의 가치관이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기도 하다. 《聊齋志異》의 작품 중에서 〈曾友于〉는 효와 우애를 강조하는 현실적인 윤리 도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曾友于〉를 화본소설로 재창작한 《醒夢駢言》과 《刪定二奇合傳》의 작가 역시 《聊齋志異》에서 보여주는 현실적인 문학관을 이어 받았으며, 현실적인 내용과 윤리도덕을 강조하는 蒲松齡의 창작관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셋째, 화본소설로 재창작된 〈曾友于〉는 인물의 심리 묘사가 매우 뛰어나다. 〈曾友于〉는 사건 발생 위주로 진행되었지만, 《醒夢駢言》과 《刪定二奇合傳》은 사건 진행 과정에서 누락된 인물묘사, 장면묘사, 내용전개 등을 상당히 세밀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원작을 새롭게 재창작하면서 서술, 묘사, 내용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고 확대한 작품은 그리 많지 않다. 《醒夢駢言》의 12작품 중에서도 〈曾友于〉는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이러한 특징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醒夢駢言》이 〈曾友于〉의 내용과 구성에 변화를 준 것과는 달리, 《刪定二奇合傳》은 원작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화본소설의 형식적인 특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醒夢駢言》과는 다른 방식으로 재창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聊齋志異》의 〈曾友于〉는 문언소설에서 백화소설로 개작한 대표적인 작품이므로, 〈曾友于〉를 통해서 원작과 재창작 작품의 비교가 용이하며, 재창작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와 특징을 자세히 고찰할 수 있다.

《聊齋志異》와 《醒夢駢言》, 《刪定二奇合傳》은 모두 清代에 출간되었는데, 일반적으로 《聊齋志異》, 《醒夢駢言》, 《刪定二奇合傳》의 순으로 출간되었다고 여겨진다.¹⁴⁾ 간혹 일부 학자들이 《醒夢駢言》의 출간이 《聊齋志異》보다 앞서며, 《聊齋志異》가 《醒夢駢言》을 모방했다는 견해를 제기하고 있지만,¹⁵⁾ 여러 가지 문헌자료

14) 《聊齋志異》와 《醒夢駢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聊齋志異》가 《醒夢駢言》보다 창작 연대가 앞선다는 설과, 반대로 《醒夢駢言》이 《聊齋志異》보다 창작 연대가 앞선다는 설이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醒夢駢言》이 《聊齋志異》를 참고하여 재창작했다는 설을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聊齋志異》가 《醒夢駢言》보다 앞선다는 견해를 가지고 《聊齋志異》의 재창작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聊齋志異》와 《醒夢駢言》의 창작 연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비교는 丁曉昌, 〈試論《醒夢駢言》取材於《聊齋志異》〉(《南京師大學報》, 1999年第3期), 130-131쪽 참조.

15) 顧青, 〈《醒夢駢言》二考〉, 《文學遺產》(1997年第6期), 93-95쪽; 陳泳超, 〈《醒夢駢言》摹襲《聊齋志異》考〉, 《明清小說研究》(1997年第3期), 175-177쪽 참조.

와 줄거리 전개, 어휘 사용, 수사기교 등을 살펴보면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저자의 서문, 방언의 인용, 출간된 자료 등 작품 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서사구조의 완성성, 묘사기교의 전문성, 언어운용의 적합성 등 작품의 내적인 요소를 살펴본다면 《醒夢駢言》이 《聊齋志異》를 재창작했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聊齋志異》와 《刪定二奇合傳》의 출간순서에 대해서는 《聊齋志異》가 《刪定二奇合傳》보다 먼저 출간된 점에는 큰 이견이 없는 듯하다. 이러한 시각은 《醒夢駢言》과 《刪定二奇合傳》의 출간 순서의 문제에서도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醒夢駢言》이 《刪定二奇合傳》보다 출간 년대가 앞서고 있어서, 《聊齋志異》와 연관시킨다면 《刪定二奇合傳》이 앞의 두 작품집보다 시간적으로 뒤에 출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聊齋志異》가 《醒夢駢言》과 《刪定二奇合傳》에 영향을 끼쳤고, 《醒夢駢言》과 《刪定二奇合傳》은 《聊齋志異》의 작품을 보다 다양하고 창조적으로 변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醒夢駢言》과 《刪定二奇合傳》은 《聊齋志異》의 작품을 비슷하게 변화시킨 것뿐만 아니라, 그 나름대로 독특한 방식으로 원작과는 다른 느낌과 구조, 묘사, 서사방식으로 재창작하였다. 이것은 원작을 변화시켜 다양하게 변화, 창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 과정 속에서 문학작품의 개작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미학적 관점을 살펴볼 수 있다. 나아가 당시 독자들이 요구하는 작품의 경향과 내용이 실제로 작품에 어떻게 투영되고 반응했는지도 추측할 수 있다.

Ⅲ. 서사형식과 줄거리의 변화: ‘문언’과 ‘화본’

《聊齋志異》의 〈曾友于〉, 《醒夢駢言》의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 《刪定二奇合傳》의 〈曾孝廉解開兄弟劫〉는 주제의 부각에 있어서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문체를 비롯한 서술구조와 경향에 있어서는 다른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먼저, 《聊齋志異》는 문언소설이므로 문언문의 서사형식을 가지고 있다. 압축된 서술, 간결한 묘사, 빠른 줄거리 진행을 보여 준다. 인물의 대화와 장면 및 상황묘사에 있어서도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여 간단하면서도 함축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다른 문언소설과는 달리, 《聊齋志異》의 작품 말미에는 ‘異史氏曰’이라는 평어를 삽입하고 있어 작가의 개입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줄거리 진행에 있어서는 발

단(시작)→전개→절정(전환)→결말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사 기교에 있어서는 인물의 등장과 장면의 전개에 따라 서술을 축약하거나 또는 확장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曾友于〉가 문언소설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서사기교는 백화소설에서 흔히 나타나는 '확장'보다는 '축약'의 특징이 강하게 나타난다. 비록 세 작품은 비슷한 줄거리 진행을 보이고 있지만, 서술구조는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聊齋志異》의 〈曾友于〉를 살펴보면,

구성	줄거리	비고
발단	① 주요인물에 대한 서술(曾翁), 인물들의 출신 내력(배경 설명) ② 형제들의 출생 내력-후처와 첩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이 서로 반목-형제들 간의 원한은 더욱 깊어짐	
전개	③ 曾成 등장-첩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에게 조력자 등장 [약자의 입장에서 대등하거나 우세한 입장으로 전환, 힘의 대결에서 변화를 가져옴] ④ 형제간의 갈등은 曾孝의 자식 간의 갈등에서 그대로 이어짐	
절정	⑤ 집안 내부의 갈등이 외부로 확대- 소송, 감옥에 간힘	
결말	⑥ 曾孝, 曾忠이 후회하고 가족들은 화목하게 지냄 ⑦ 異史氏曰- 서술자의 개입	

〈曾友于〉는 발단→전개→절정→결말의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曾友于〉를 화본소설로 개작한 《醒夢駢言》의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과 《刪定二奇合傳》의 〈曾孝廉解開兄弟劫〉은 〈曾友于〉와는 달리 발단과 결말사이에 入話→正話→篇尾의 서사 형식을 가지고 있다. 내용의 전개에 있어서는 소설의 기본 형식인 발단(시작)→전개→절정(전환)→결말의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은 화본소설의 전형적인 서사 형식을 가지고 있다.

구성		줄거리	비고
入話		① 入話詩: 念奴嬌 ② 入話議論: 형제간의 우애 강조	
正話	발단	① 등장 인물 소개	
	전개	② 형제간의 갈등 ③ 갈등이 내부에서 외부로 확대 ④ 산적에게 납치되었던 平成 등장 [새 인물의 등장, 이야기의 극적인 전개, 전환] ⑤ 형제간의 갈등이 자식들에게로 이어짐	
	절정	⑥ 형제들과 처들의 싸움에서 사돈 간의 싸움으로 급전	
	결말	⑦ 많은 일들을 겪은 후에 형제들이 화목해짐	
篇尾	篇尾詩		

《刪定二奇合傳》의 〈曾孝廉解開兄弟劫〉은 《醒夢駢言》의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과 마찬가지로 화본소설의 기본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다르게 각색 수정하였다. 특히 ‘入話’에 있어서는 ‘入話詩’, ‘入話議論’, ‘入話故事’, ‘結尾詩’를 배치하고 있어,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보다 ‘入話’에 보다 많은 내용과 편폭을 할애하고 있다. 入話가 차지하고 있는 편폭은 전체 이야기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正話’의 내용에 있어서도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가 인명을 바꾸고,¹⁶⁾ 원작에 없는 내용을 첨가하거나 보다 세밀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曾孝廉解開兄弟劫〉은 비교적 〈曾友于〉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16) 《刪定二奇合傳》의 〈曾孝廉解開兄弟劫〉은 《聊齋志異》의 〈曾友于〉에 사용된 인명과 동일하지만, 《醒夢駢言》의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에서는 인물의 이름이 바뀌었다. 작중 인물의 관계를 증노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세 작품의 가족 관계가 모두 일치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聊齋志異》의 〈曾友于〉와 《刪定二奇合傳》의 〈曾孝廉解開兄弟劫〉은 가족 관계가 동일하지만, 《醒夢駢言》의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에는 약간의 변화가 보인다. 특히 曾孝와 비녀 사이에 낳은 繼祖의 등장은 《聊齋志異》의 〈曾友于〉와 《刪定二奇合傳》의 〈曾孝廉解開兄弟劫〉에는 보이지만, 《醒夢駢言》의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에서는 삭제되었다. 세 작품의 인명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가족관계	작 품		
	《聊齋志異》 〈曾友于〉	《醒夢駢言》第五回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	《刪定二奇合傳》 第二十四回 〈曾孝廉解開兄弟劫〉
본인	曾翁	平長髮	曾翁
처	본처	尤氏	본처
후처	후처	甘氏	후처
첩	첩실(張夫人)	張氏	첩실(張夫人)
子	曾成(실종)	平成(실종)	曾成(실종)
子	曾孝	平衣	曾孝
子	曾忠	平身	曾忠
子	曾信	平缶	曾信
子	曾悌(曾友于)	平白	曾悌(曾友于)
子	曾仁	平聿	曾仁
子	曾義	平婁	曾義
孫(曾孝의 子)	繼業	平立德	繼業
며느리 (曾孝의 후처)	馮氏	王氏	馮氏
孫(曾孝의 子)	繼德	平立言	繼德
며느리 (曾孝의 첩)	劉氏	全氏	劉氏
孫(曾孝의 子)	繼功	平立功	繼功
孫(曾孝의 子)	繼績	平立行	繼績
孫(曾孝의 自)	繼祖	×	繼祖

이상의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聊齋志異》의 〈曾友于〉와 《刪定二奇合傳》의 〈曾孝廉解開兄弟劫〉의 인명과 인물의 등장은 일치한다. 그러나 《醒夢駢言》의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에서는 증노인 자손들과 며느리의 이름이 모두 바뀌었으며, 어떤 인물은 아예 사라지기도 하였다. 반면에 《醒夢駢言》에서는 〈曾友于〉와 〈曾孝廉解開兄弟劫〉에서 모호했던 성명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曾孝廉解開兄弟劫〉은 〈曾友于〉를 화본소설로 재창작하는 과정에서 인물의 성명뿐만 아니라, 인물의 등장, 삭제 등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비록 등장인물의 구체적인 성명은 각기 다르지만, 그 성격과 특징은 일치한다.

구성		줄거리	비고
入話		① 入話詩 ② 入話議論-入話詩 해설 ③ 入話故事1 ④ 入話故事2 ⑤ 結尾詩-議論+結尾詩	형제간의 우애 강조
正話	발단	① 등장 인물 소개	
	전개	② 형제간의 갈등 ③ 갈등이 내부에서 외부로 확대 ④ 산적에게 납치되었던 曾成 등장 [새로운 인물의 등장, 이야기의 극적인 전환] ⑤ 형제간의 갈등이 자식들에게로 이어짐	
	절정	⑥ 형제들과 처들의 싸움에서 사돈 간의 싸움으로 급전	
	결말	⑦ 많은 일들을 겪은 후에 형제간의 우애가 두터워짐	
篇尾	篇尾詩		

이상의 서사형식과 줄거리 진행을 살펴보면, 《聊齋志異》의 〈曾友于〉, 《醒夢駢言》의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 《刪定二奇合傳》의 〈曾孝廉解開兄弟劫〉의 서사형식이 다르게 나타나며, 줄거리 진행에 있어서는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어느 정도 차별된 점도 있음을 알 수 있다. 〈曾友于〉는 문언소설의 형식에 맞게 절제된 묘사, 간결한 서사를 보이고 있으며,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과 〈曾孝廉解開兄弟劫〉은 화본소설의 전형적인 서사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내용의 전개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보이지만, 전체적인 줄거리 구조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曾孝廉解開兄弟劫〉이 ‘入話’의 구성과 편폭에 있어서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보다 편폭이 확대되고, 내용이 다채로워졌다.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에서는 ‘入話詩’에 대한 해설이 없는 반면에, 〈曾孝廉解開兄弟劫〉에서는 ‘入話詩’에 대한 해설이 자세히 나타나 있으며, ‘入話議論’은 두 작품에서 모두 나타나지만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이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에는

‘入話故事’가 없지만, 〈曾孝廉解開兄弟劫〉은 ‘入話故事’가 2편이 있으며, 일반적인 화본소설의 서사형식에서 ‘入話’가 차지하는 편폭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이 ‘入話故事’는 모두 ‘正話’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제인 ‘우애’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入話’의 끝부분에 ‘結尾詩’와 연결해 ‘議論’을 삽입한 것은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보다 ‘入話’부분에 더 치중한 것으로 보인다.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와 〈曾孝廉解開兄弟劫〉은 모두 ‘篇尾詩’로 마무리하고 있다.

IV. 서사내용의 변화: ‘답습’, ‘확대’, ‘축소’

《聊齋志異》의 〈曾友于〉, 《醒夢駢言》의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 《刪定二奇合傳》의 〈曾孝廉解開兄弟劫〉의 편폭을 살펴보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曾友于〉의 전체 편폭은 2,439자이고,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는 11,046자이다. 〈曾孝廉解開兄弟劫〉은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보다 훨씬 적은 5,854자이다. 문언소설인 〈曾友于〉보다 화본소설인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과 〈曾孝廉解開兄弟劫〉의 편폭이 크게 늘어났는데, 특히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은 〈曾友于〉보다 4배나 증가하였다. 〈曾孝廉解開兄弟劫〉의 편폭은 〈曾友于〉보다 2배 정도로 늘어났는데, 이 중에서 ‘入話’에 해당하는 부분이 1,427자로, 전체 분량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入話’부분을 제외하면 ‘正話’는 4,427자이므로 〈曾友于〉의 1.8배가 된다.

문언소설에서 화본소설로 개작되면서 줄거리의 전개와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복잡해졌다. 줄거리 내용이 심화되거나 확대되었고, 인물묘사가 더욱 세밀하고 다양해졌으며, 이야기 진행이 보다 굴곡적으로 전개되었다. 비록 줄거리 구성과 내용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전체적인 이야기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작품의 줄거리의 진행, 세부적인 묘사에 있어서는 《聊齋志異》의 〈曾友于〉와 《醒夢駢言》의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 《刪定二奇合傳》의 〈曾孝廉解開兄弟劫〉이 상당히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압축된 서사를 특징으로 하는 문언소설과 서술과 수식을 중심으로 하는 화본소설의 특징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문언소설은 백화문으로 창작된 화본소설에 비해 축약된 서사를 운용한다. 인물묘사나 줄거리 진행에 있어서는 ‘簡敘’, 혹은 ‘略敘’의 서사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사는 줄거리 위주로 간략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개인의 심리묘사와 행동, 언어 등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표현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진다. 이외는 달리 화본소설은 당시의 구어체로 창작되었기 때문에 '鋪敍'와 '詳敍'의 서사 특징을 가진다. 세부적인 줄거리 진행이나, 인물의 다양한 특징을 보다 자세하게 그려낼 수 있다.

《醒夢駢言》의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과 《刪定二奇合傳》의 〈曾孝廉解開兄弟劫〉이 《聊齋志異》의 〈曾友于〉에 비해서 편폭이나, 내용 전개, 인물 묘사에 있어서 확대되고 세밀하게 진행되었지만, 어떻게 '답습', '확대', 혹은 '축소'되었는지는 보다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¹⁷⁾ 세 작품의 전체적인 편폭에 있어서는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과 〈曾孝廉解開兄弟劫〉이 〈曾友于〉보다 크게 늘었기 때문에, 〈曾友于〉보다 많은 내용이 '추가'되었다고만 여겨지지만, 실제로 '추가'뿐만 아니라 '답습', '축소', '삭제'도 같이 진행되었다. 〈曾友于〉를 원작으로 보았을 때,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과 〈曾孝廉解開兄弟劫〉을 살펴보면, 원작보다 묘사가 더욱 세밀하고 다채로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줄거리의 전개에 있어서 없던 내용을 새로 삽입하거나, 삭제하면서 전체적으로 '敷衍', '鋪敍'의 서사 기교를 운용하고 있다.

《聊齋志異》의 〈曾友于〉를 중심으로 《醒夢駢言》의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 《刪定二奇合傳》의 〈曾孝廉解開兄弟劫〉 간의 '답습(전승)', '확대(확장, 심화)', '축소(축약, 삭제)'가 진행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⁸⁾

17)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과 〈曾孝廉解開兄弟劫〉의 '답습', '축소', '삭제'가 일어나는 원인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작품에 대해서 원문을 제외하고는 저자 및 개작배경, 그 이유를 분명하게는 알 수 없다. 본 논문은 '답습', '축소', '삭제'가 왜 나타났는가에 대한 원인과 그 의미를 규명하는 것 보다는 이러한 서사적 특징이 어떻게 변화되어 나타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8) 《聊齋志異》의 〈曾友于〉와 《刪定二奇合傳》의 〈曾孝廉解開兄弟劫〉에서는 인명이 동일하지만, 《醒夢駢言》의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에서는 몇몇의 인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바뀌었다. 비록 인명은 다를지라도 모두 동일한 인물을 가리킨다. 본 논문에서는 서술의 편의상 《聊齋志異》의 〈曾友于〉 인명으로 통일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敘事內容 답습(전승): 확대(심화): 축소(삭제): X(無) / ○(多) / △(簡)	《聊齋志異》 〈曾友于〉 〔原作〕	《醒夢駢言》 第五回 〈逞凶焰(談) 欺凌柔懦 釀和氣感化 頑殘〉	《刪定二奇合傳》 第二十四回 〈曾孝廉解開兄 弟劫〉	비고
*入話(入話詩, 入話議論, 入話故事)	X(無)	○(多)	△(簡)	
1. 증노인의 입관, 曾友于의 권계	○	○	○	
2. 증노인 일가의 구성(출생배경) 曾成모자의 납치, 실종	○	○	○	
3. 曾孝 딸의 죽음으로 인한 周家와의 불화 -曾友于형제의 가담거절로 인한 曾孝형제가 행패를 부림-曾孝형제와 曾友于형제의 불화 가속	○	○	○	
4. 張夫人(曾友于의 모친)의 죽음-曾孝형제의 주태 -曾孝형제의 반대로 길가에 묻음	○	○	○	
5. 曾孝 아내의 죽음-曾仁和 曾義의 행패, 조문 방 해-매질-曾友于의 변호-소송취하	○	○	○	
6. 曾友于의 이사	○	○	○	
7. 曾孝형제들이 曾友于 형제들을 멀리함-曾孝형제 칼을 품고 다님	○	○	○	
8. 曾成의 귀환-재산의 추렴-曾成과 曾孝형제의 불 화	○	○	○	
9. 張夫人 장례에 대한 曾成의 분노-移葬주장	○	○	○	
10. 曾成의 曾友于에 대한 존중	○	○	○	
11. 曾成과 曾孝의 대립-曾友于 三泊으로 이사	○	○	○	
12. 曾成 아들 형제들의 분란	○	○	○	
13. 曾繼祖의 曾友于 집 방문-머무르고자 함-曾友 于의 설득으로 돌아감	○	X	○	
14. 曾繼祖는 三泊의 曾友于집에 거주	○	X	○	
15. 曾友于가 曾忠을 만남	X	X	○	
16. 繼功과 繼業의 싸움, 살인-처들의 싸움, 살인	○	○	○	
17. 馮大立의 복수-曾成의 보복(사돈지간의 싸움으 로 확대)	○	○	○	
18. 曾忠의 도망, 후회	○	○	○	
19. 曾氏 일가와 馮氏일가의 소송 취하	○	○	○	
20. 曾友于가 고향으로 돌아옴	○	△(簡)	X	
21. 曾孝, 曾友于형제들의 화목-자손들의 과거 급제	○	○	○	
** 異史氏曰	○			
*** 篇尾詩			○	

다음으로 ‘답습’, ‘확대’, ‘축소’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답습’은 ‘전승’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로 《聊齋志異》의 〈曾友于〉 내용을 그대로 계승하거나, 혹은 약

간의 변화가 있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이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인물의 특징 묘사, 대화의 운용에 다소 변화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줄거리가 비슷하며, 사건 진행과 주제의 부각에 있어서도 이전 작품의 경향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을 가리킨다. 비록 서술의 진행에 있어서 인물에 대한 묘사가 많아지거나, 세부적인 줄거리가 첨가되거나, 혹은 새로운 인물과 대사가 간혹 삽입되기는 하지만, 약간의 세부적 묘사와 서술시각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서술의 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다.

‘확대’는 작품의 ‘외적인 확장’과 ‘내적인 심화’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으며, 편폭의 증가에 따라 없던 이야기를 넣거나,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키거나, 혹은 간단한 장면을 추가로 삽입하는 것이다. ‘외적인 확장’은 편폭의 증가, 새로운 장면과 인물의 개입 등과 같은 외적인 확대를 말하고, 주제를 선명하게 부각시키거나, 인물의 언행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보다 세밀한 묘사를 진행하는 것을 ‘내적인 심화’라고 한다. ‘내적인 심화’는 ‘답습’의 경우에도 간혹 보이는데, 그 정도가 미미하고 운용되는 범위가 제한적이다. ‘내적인 심화’는 어떤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와 어떤 내용을 보다 세밀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되지만, 대부분 ‘외적인 확장’과 더불어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 ‘확대’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변화를 주면서 깊이 있게 서사 기교를 운용하는 것이므로, 내용을 첨가하는 ‘외형적 확장’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생생한 묘사를 통해 ‘내적인 심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축소’는 ‘축약’과 ‘삭제’의 특징을 포함하며, 원작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거나, 혹은 생략하여 다른 내용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문언소설에서 백화소설로의 개작에서는 ‘답습’이나 ‘확대’에 비해 자주 나타나지는 않는다. 비록 작품의 일부가 ‘축약’,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 줄거리의 골간과 진행에 있어서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1. 원작의 계승과 유지: ‘답습’

《聊齋志異》의 〈曾友于〉를 개작하는 과정에서 ‘답습’은 〈曾友于〉 내용을 그대로 계승하거나 유지하는 서사적 특징을 말한다. 먼저 《聊齋志異》의 〈曾友于〉와 《醒夢駢言》의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을 비교하면, 내용 분량에 있어서 〈逞

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이 보다 큰 편쪽을 가지고 있다. 《聊齋志異》의 〈曾友于〉의 내용을 계승한 경우는 대부분 줄거리가 비슷하거나 동일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문언소설에서 흔히 보이는 '略敍'와 회본소설의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鋪敍'의 차이 이외에 중요한 줄거리 전개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聊齋志異》의 〈曾友于〉 도입부분에서 증노인 본처와 아들의 납치, 실종, 증노인이 다시 후처를 들여 아들을 낳는 등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曾友于〉,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 〈曾孝廉解開兄弟劫〉 모두 비슷한 묘사 방식과 줄거리를 보여주고 있다.

증노인은 생전에 본처에게서 큰 아들 曾成을 낳았다. 曾成은 예닐곱 살 되던 해에 본처와 함께 도적에게 납치당하였다. 이어 후실을 들여 曾孝, 曾忠, 曾信 세 명의 아들을 낳았다. 또한 첩실을 들여 曾悌, 曾仁, 曾義를 낳았다. 曾孝는 曾悌의 출신이 빈천하다하여 무시하며 상대하지 않았으므로, 曾忠, 曾信과 무리를 지어 다녔다. 설령 손님과 술을 마실 때에 曾悌의 형제들이 대청(大廳) 아래를 지나가더라도 거만하게 대하며 예를 갖추지 않았다. 曾仁과 曾義는 화가 나 曾友于와 공모하여 복수하고자 하였다. 曾友于是 좋은 말로 타이르고 공모에 동참하지 않았다. 曾仁과 曾義는 아직 나이가 어린데다가 형이 타이르므로 곧 그만두었다. 《聊齋志異》의 〈曾友于〉)19)

平長鬚은 본처 尤氏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平成이라고 하였다. 平成이 네 살 되던 어느 날 平長鬚이 외지로 출타하였는데, 그날 밤 산적 수백 명이 平氏가 부자라는 소문을 듣고 집으로 쳐들어와 모든 물건을 약탈하였다. 당시 집안에는 장정 수십 명이 있었지만, 대적하지 못하고 모두 흩어져 도망가고 집안의 것들은 모두 강탈당하였다. 산적은 용모가 그런대로 괜찮은 尤氏를 보고서는 바로 잡아 버렸다.……그해에 甘氏(후실)가 張氏(첩실)보다 아들 한 명을 먼저 낳았다. 사람들은 그가 급하니까 (甘氏에게서 자식이 없어 張氏를 들이자) 甘氏가 자식을 낳은 거라며 웃었다. 平長鬚은 아들의 이름을 平衣라고 지었다. 그 이듬해에 張氏(첩실)가 아들을 낳았으며 이름을 平白이라고 지었다. 그 후에 甘氏가 다시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각각 平身, 平缶이라고 지었다. 張氏가 또다시 아들 둘을 낳

19) 先是, 翁嫡配生長子成, 至七八歲, 母子爲強寇擄去. 娶繼室, 生三子: 曰孝, 曰忠, 曰信. 妾生三子: 曰悌, 曰仁, 曰義. 孝以悌等出身賤, 鄙不齒, 因連結忠、信爲黨. 卽與客飲, 悌等過堂下, 亦傲不爲禮. 仁、義皆忿, 與友于謀, 欲相仇. 友于百詞寬譬, 不從所謀; 而仁、義最少, 因兄言, 亦遂止. 《聊齋志異》의 〈曾友于〉)

았는데 모두 平岳의 동생들이며, 平聿, 平婁라고 불렀다.((《醒夢駢言》의 〈逞兇焰 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²⁰⁾

증노인은 본성이 소박하고 선한 사람이다. 본처 王氏에게서 曾成이라는 아들을 낳았다. 당시 흉년으로 도적이 도처에서 나타나 약탈을 일삼았다. 어느 날 증노인이 외지에 출타하여 밤이 되어서도 돌아오지 않자, 도적들이 갑자기 마을로 쳐들어와 曾成 母子를 잡아갔다. 다음 날 아침, 증노인이 집으로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고 은자를 마련해서 母子를 데려오려고 백방으로 수소문하였다. 백여 일 동안 사방으로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증노인은 몹시 마음이 아팠지만, 따로 陳氏를 후실로 맞아들여 대를 잇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었다. 그 이듬해 다시 張氏를 첩실로 맞이하였다. 陳氏는 曾孝, 曾忠, 曾信이라는 세 아들을 낳았고, 張氏역시 曾悌, 曾仁, 曾義이라는 세 아들을 낳았다.((《刪定二奇合傳》의 〈曾孝廉解開兄弟劫〉)²¹⁾

세 작품 모두 증노인 一家의 구성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曾友于〉는 증노인 본처의 실종, 증노인의 재혼, 아들의 출생을 비교적 간단하게 다루고 있다. 〈逞兇焰 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과 〈曾孝廉解開兄弟劫〉도 기본적으로 〈曾友于〉의 서술과 비슷하지만, 〈逞兇焰 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은 〈曾友于〉와 〈曾孝廉解開兄弟劫〉에서 간단하게 다루어졌던 증노인 본처의 납치 사건에 있어서 단지 결과만을 서술하지 않고, 증노인 본처가 도적에게 부탁하는 장면을 삽입하고 있다. 증노인 본처가 도적에게 납치당했을 때 아들 曾成을 살리기 위해서 도적에게 애걸하는 장면은 〈曾友于〉와 〈曾孝廉解開兄弟劫〉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증노인이 다시 후처를 얻었지만 자식을 낳지 못하자 다시 첩을 들이고, 후처가 바로 아들을

20) 有個叫平長髮, 家財百萬, 娶妻尤氏, 生下一子, 名喚平成, 才得四歲, 一日, 平長髮出門去了, 那夜有山寇數百, 風聞富名, 前來打劫平家, 雖有幾十個家丁, 那裡抵敵, 都被趕散, 把家中所有, 盡數劫了, 又見尤氏有些姿色, 也便擄去, ……甘氏那年倒就產了一男, 人家笑他著了急, 才生下的, 當下平長髮取名這兒子叫平衣, 到明年張氏也生一子, 取名平白, 後來甘氏又生二子, 一個叫平身, 一個叫平岳, 張氏也又產下兩子, 都是平岳的弟弟, 喚做平聿, 平婁.((《醒夢駢言》의 〈逞兇焰 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

21) 曾翁爲人本樸好善, 嫁妻王氏, 生一子名成, 時值荒年, 賊寇四出劫擄, 那一日, 曾翁出外天晚未回, 賊寇陡然來到村內, 將曾成母子擄去, 次早, 曾翁回家, 欲待將銀取贖, 尋訪了白余日, 全無影響, 曾翁傷痛一回, 只得又另娶陳氏爲妻, 次年又娶一妾張氏, 陳氏生子三人, 名: 孝, 名: 忠, 名: 信; 張氏亦生子三人, 名: 悌, 名: 仁, 名: 義.((《刪定二奇合傳》의 〈曾孝廉解開兄弟劫〉)

놓게 되는데, 이 사건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반응도 간단하지만 몇 마디로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曾友于〉와 〈曾孝廉解開兄弟劫〉에는 생략되어 있다. 비록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이 〈曾友于〉와 〈曾孝廉解開兄弟劫〉에 비해서 증노인 一家에 대한 사건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보다 생동적으로 그려내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전체 작품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편폭도 상당히 짧아서 사건을 추가로 삽입하거나 상세하게 부연하는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이러한 답습의 서사 방식은 曾孝 형제와 曾友于 형제간의 內訌에 대한 묘사에서 도 예외는 아니다. 구체적인 줄거리를 살펴보면, 曾孝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같은 縣의 周孝思의 아들과 결혼했으나, 병으로 죽게 된다. 曾孝는 시어머니가 박해해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면서 형제들을 모아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고 曾友于와 그의 형제들(曾仁, 曾義)이 가담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曾友于是 예외에 어긋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담하지 않자, 曾孝는 일단 장정들을 모아 周家로 가서 행패를 부린다. 周氏父子는 관가에 고소하고 현령은 曾孝 일당들을 잡아 감옥에 가둔다. 曾友于是 현령에게 달려가 선처를 호소하고, 또한 周氏에게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부탁하는데, 周氏는 평소 曾友于를 존경하던 터라 曾孝의 행패를 용서한다. 曾友于의 이러한 화해의 노력으로 사건은 무마되었지만, 曾孝와 그의 형제들(曾忠, 曾信)은 오히려 曾友于를 더욱 미워하며 멸시하였다.

이러한 형제들 간의 반목은 張夫人과 曾孝 처의 장례 사건을 두고 더욱 첨예하게 대립한다.²²⁾ 曾孝를 비롯한 그의 형제들이 曾友于와 그의 형제들을 멸시하고

22) 曾友于의 모친인 張夫人이 세상을 떠나자, 曾友于와 그의 형제들은 비통해 했지만, 曾孝와 그의 형제들은 술판을 벌이고 희희낙락거린다. 張夫人을 장례를 치르려고 부친의 무덤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첩인 張夫人을 증노인과 같이 무덤을 쓸 수 없다하여, 하는 수없이 길가에 묻게 된다. 이 일은 曾友于 형제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겼으며, 曾孝 형제들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확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얼마 후 曾孝의 처가 병으로 죽자, 曾仁과 曾義는 상가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웃고 떠들었다. 曾友于 형제들은 자신들을 쫓아 오는 曾孝 형제들을 피해 도망갔으나, 曾義가 붙잡히고 曾孝 형제들은 그를 흠씬 두들겨 패버린다. 曾友于是 이 사실을 알고 달려가 몸으로 막으며 용서를 빌었지만, 曾孝는 더욱 크게 노하며 曾友于까지도 때린다. 몰래 도망 나온 曾仁은 관가에 고소하고, 曾孝 형제들은 관가로 불려가게 된다. 曾友于是 직접 출두하지 못하고 소송을 취하해 달라는 글을 현령에게 보내고 현령은 曾孝 형제들에게 훈계하고서 집으로 돌려보낸다. 曾義는 이후 점차 상처를 회복하였지만, 曾孝 형제들에 대한 원한은 더욱 깊어간다. 형제들 간의 싸움에 지친 曾友于是 결국 식솔들을 데

모욕을 주자, 曾友于의 동생들은 언제든지 曾孝와 그의 형제들을 죽일 각오로 칼을 지니고 다닌다.

曾仁和 曾義는 나이가 어려서 언제나 고통을 당하였다. 형인 曾友于에게 원망하면서 말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형제가 있는데, 유독 우리만 혼자군요!” 曾友于是 대답하였다. “이 말은 마땅히 내가 할 말인데, 두 동생들이 어찌 운운 한단 말인가!” 曾友于是 여러 차례 동생들을 타일렀지만 결국 듣지 않았다. 曾友于是 마침내 빗장을 걸고 문을 닫고 처자식을 데리고 집에서 오십 여리 떨어진 곳에 거처를 마련하여 떠났는데, 서로의 소식을 알고자 하지 않았다. 曾友于가 집에 있을 때에는 曾孝 형제들이 비록 동생을 도와주지는 않았지만, 약간은 조심하고 꺼렸다. 曾友于가 이미 떠나버렸으니 曾孝 형제들이 무리를 지어 항상 그 문 앞에서 욕하면서 이미 고인이 된 張夫人의 이름을 부르며 모욕하였다. 曾仁和 曾義는 대적할 수 없어서 단지 두문불출하며 틈을 타서 찔러 죽일 생각뿐이었다. 그들은 외출할 때 칼을 품고 다녔다.((聊齋志異)의 〈曾友于〉)²³⁾

平聿, 平婁는 날마다 平白을 원망하며, 쓰지 말아야 할 소장을 현으로 보냈다. 平白은 여러 차례 타일렀지만, 둘은 이미 장성하여 기질이 당당한데 어찌 말을 들으려하겠는가! 平衣의 형제들과의 원한은 더욱 깊어졌다. 날마다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기력을 낭비하니, 平白이 날마다 이렇게 소란스럽게 떠드는 것을 듣는 것도 귀찮을 지경이었다. 이전에는 平衣에게 의지하여 참고 있었던 형제들조차도 이처럼 거칠고 완강하니, 마음속으로 씩 유쾌하지는 않았다. “여기서 살기는 힘드니, 차라리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편이 낫겠구나.”라고 말하고는 집에서 삼십 리나 떨어진 곳에 집을 사서 처자식을 데리고 날을 택하여 이주하였다.……(平聿, 平婁)는 각각 날이 선 칼을 사 가지고 옷 속에 품고 다녔다. 그들을 찔러 죽이고자 하였으나, 일이 쉽지 않아 날마다 고민하였다.((醒夢駢言)의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²⁴⁾

리고 三泊으로 이사 간다. 曾友于가 고향에 있을 때에는 曾孝와 그의 형제들이 曾仁, 曾義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지만, 曾友于가 떠나자 曾仁, 曾義을 서술 출신이라고 더욱 업신여기고 멸시한다.

23) 仁、義皆幼弱，輒被敲楚。怨友于曰：“人皆有兄弟，我獨無！”友于曰：“此兩語，我宜言之，兩弟何云！”因苦勸之，卒不聽。友于遂扃戶，攜妻子借寓他所，離家五十餘里，冀不相聞。友于在家，雖不助弟，而孝等尙稍有顧忌；既去，諸兄一不當，輒叫罵其門，辱侵母諱。仁、義度不能抗，惟杜門思乘間刺殺之，行則懷刃。((聊齋志異)의 〈曾友于〉)

24) 兩個(平聿, 平婁)日日埋怨平白, 不該寫那個稟貼縣裡去。平白三翻四覆勸諭, 他兩個

曾仁和曾義는 나이가 어리고 몸이 허약하여 항상 멀시를 당하고서 曾友于에게 와서 하소연을 하였다. 曾友于是 여러 차례 타이르면서 문을 걸어 공부에 매진 하라고 하면서, 다른 형들에게 참고 양보하며 싸우지 말라고 하였다. 曾仁和曾義는 그의 말을 듣지 않자, 曾友于도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처자식을 데리고 오십 여리 떨어진 곳에 거처를 빌려 거주하였는데, 형제들의 소식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 ‘창과 모가 불행이도 한 집안에서 다투니, 어질고 현명한 사람도 형제간의 싸움을 만류할 방법이 없구나!’ 曾友于가 집에 살 때는 曾孝 형제들이 曾仁和曾義를 도와주지는 않았지만,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曾友于가 떠나간 후에 曾孝 형제들은 더욱 방자해져 거리낄 것이 없어 말을 제멋대로 하였다. 曾仁和曾義는 약간은 못마땅하였지만, 그들은 밤낮으로 집으로 몰려와 고향치고 욕하였는데, 심지어 이미 고인이 된 張夫人에 대해서도 모욕을 주었다. 曾仁和曾義는 틈을 타서 曾孝를 찢러 죽이고자 날마다 칼을 지니고 다녔다. (《刪定二奇合傳》의 〈曾孝廉解開兄弟劫〉)²⁵⁾

이 장면은 曾友于의 曾仁, 曾義에 대한 권계, 曾友于의 이주, 曾仁和曾義의 曾孝에 대해 강한 원함과 보복의 감정을 묘사하고 있다. 이 부분은 曾孝 형제들의 周氏 일가에서의 난동→曾友于의 중재로 인한 소송 취하→張夫人의 喪禮에 대한 불손→曾孝 처의 喪禮에 대한 결례 등 일련의 사건 후에 나타나는데, 세 작품에 나타난 묘사와 줄거리 진행 및 편폭의 분량에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曾友于〉에 없던 새로운 인물이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이나, 〈曾孝廉解開兄弟劫〉에 등장하지 않고 있으며, 인물간의 심리, 행동에 대한 묘사가 특별히 늘어 나지도 않으며, 다른 사건이나 내용이 추가로 삽입되지도 않는다. 앞서 전개되었던 일련의 사건 묘사에서의 편차와는 달리, 이 부분은 세 작품이 거의 비슷한 서사

都已壯年，氣性正大，那裡肯聽，和平衣那邊仇愈深。日常淘神費氣，平白耳朵那聽得厭煩了，先前只耐著平衣等一邊，如今兩個同母的兄弟，又是這般倔強，心中好生不快。便道：“這裡難住，不如搬到別處去罷。”就在離家三十里，一個平同鎮上，買所房子，帶了妻兒，擇日移居不表。……各買一口快利刀子，藏在衣裳底下，思量刺殺他們，卻不得其便，終日懊惱。(《醒夢駢言》의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

- 25) 仁、義二人年幼身弱，常被欺凌，到友于處訴苦。友于再三苦勸，教他閉門讀書，須要忍讓諸兄，不必相爭。仁、義不聽，友于無計可施，只得將門鎖閉，攜了妻子去家五十余里，借寓別村，不相聞問。正是：戈矛不幸操同室，賢俊無方挽闕牆。那友于在家，雖不助仁，義兩弟，曾孝等還稍有些懼怕。友于既去之後，孝等肆無忌憚，言語更橫，仁，義二弟稍不當意，便日夜登門叫罵，連庶母也辱罵在內。仁，義欲乘空刺殺曾孝，白日帶刀而行。(《刪定二奇合傳》의 〈曾孝廉解開兄弟劫〉)

구조와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세 작품의 편폭의 길이를 살펴보면, 曾友于의 설득, 曾友于의 이주, 曾仁和 曾義의 曾孝에 대한 원한을 묘사한 부분에서는 〈曾友于〉가 146자이고,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은 304자이며, 〈曾孝廉解開兄弟劫〉은 197자이다. 문언소설과 백화소설의 차이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묘사한 부분에 있어서 세 작품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이 〈曾孝廉解開兄弟劫〉보다 글자 수가 많은 것은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에서 曾友于의 심리 묘사와 曾友于의 대화가 삽입 되었고, 줄거리의 서술이 좀 더 자세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분에 불과하며, 전체적으로는 줄거리 묘사와 서사 진행에 있어서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 이외에도 세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曾孝 형제들과 曾友于 형제들의 화해와 결합, 자손들의 과거 급제, 부귀영화를 누리는 장면 역시 세 작품에서 편폭과 서사내용의 변화 없이 비슷하게 안배되어 있다.

갑자기 曾友于 부자가 동시에 舉人에 합격하고 曾繼祖가 副榜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크게 기뻐하며, 관에서 벼문 향응(鹿鳴)에는 가지 않고, 먼저 조상의 무덤에 가서 제례를 드렸다. 명말에는 科甲 출신의 인사를 중하게 여겼으므로 馮氏 집안은 그 위세에 놀려 풀이 죽었다. 曾友于是 친척과 친구들을 통해 돈과 곡식을 건네주고 약값을 보태주었으므로 소송은 자연히 사그라들었다. 온 가족이 曾友于에게 감격하며 울면서 그가 돌아오기를 간구하였다. 曾友于와 여러 형제들은 향을 사르며 나쁜 생각을 털어버리고 새 출발을 하자고 맹세하게 하고 바로 본가로 옮겼다.……그 때 曾成은 이미 연로하여 집안의 모든 일은 曾友于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이로부터 가정이 화목하여 효도와 우애가 있는 집안이라고 칭송받았다.((聊齋志異)의 〈曾友于〉)²⁶⁾

모든 형제들이 平白을 존경하였고, 그에게 본가로 돌아와 같이 살자고 부탁하였다. 平白은 여러 형제들과 향을 사르며 맹세하였다. 이 이후로 각각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될 것임을 약속하고서 본가로 옮겨와 비로소 같이 살

26) 俄報友于父子同科, 祖亦副榜. 大喜. 不赴鹿鳴, 先歸展墓. 明季科甲最重, 諸馮皆爲斂息. 友于乃託親友賂以金粟, 資其醫藥, 訟乃息. 舉家泣感友于, 求其復歸. 友于乃與兄弟焚香約誓, 俾各滌慮自新, 遂移家還.……時成漸老, 家事皆取決於友于. 從此門庭雍穆, 稱孝友焉.((聊齋志異)의 〈曾友于〉)

게 되었다. 이로부터 여러 형제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平白에게 먼저 의견을 구하였다. 平成은 갈수록 늙어가고 성격 또한 점차 온화하게 변하여 집안은 무사태평하였다. 모든 친, 외척 형제들이 마치 부모와 같이 감화를 받아 사이 좋게 지내었다. 平白은 會試(覆試)에서 진사가 되었고, 전시(殿試) 후에 지현으로 선 발되었다.……이것이 바로 平白이 효도와 우애를 다한 보답이었다.((《醒夢駢言》의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²⁷⁾

曾孝를 비롯한 여러 형제들이 깊이 깨닫고 비로소 曾友于에게 탄복하였다. 전 가족이 눈물로 曾友于가 다시 본가로 돌아오기를 호소하였다. 曾友于是 여러 형제들과 향을 사르며 각각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시작하자고 맹세하였다. 모두가 그렇게 하기로 하고 曾友于是 본가로 이주하였다.……이로부터 집안의 모든 일은 모두 曾友于의 결정에 따랐다. 집안이 화목하고 서로 공경하였다. 후에 과거 급제가 이어지니 曾友于 일가를 더욱 중하게 여겼다.((《刪定二奇合傳》의 〈曾孝廉解開兄弟劫〉)²⁸⁾

이처럼 《聊齋志異》의 〈曾友于〉를 기준으로 《醒夢駢言》의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과 《刪定二奇合傳》의 〈曾孝廉解開兄弟劫〉이 모두 원작의 이야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것은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과 〈曾孝廉解開兄弟劫〉이 〈曾友于〉를 기본으로 하여 개작한 작품이기 때문에, 서사 구조나 줄거리의 전개에서 크게 원작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특히 주제에 있어서는 〈曾友于〉의 관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 〈曾友于〉에서는 ‘異史氏’의 말을 빌려 효도와 우애를 강조하고 있으며,²⁹⁾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의 결어에서도 자손들이 연이어 관직에 오르는 것이 曾友于(平白)가 효도와 우애를 행한 보답이라고 말

27) 衆弟兄都愛敬平白，勸他仍來城裡同居。平白與衆弟兄焚香立誓，約今後各人改過自新，方移家到城同住，從此衆弟兄有甚事情，必來請問平白。平成漸漸年老，氣性也漸和平，合門無事。倒連下一輩堂弟兄，也都感化得像同父又同母的一般友愛。後來平白會試中進士，殿試後批選了知縣。……這便是孝友的報。((《醒夢駢言》의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

28) 曾孝等衆人醒悟，才深服友于，全家涕泣請友于復回。友于先與諸兄弟焚香舉誓：各人改過自新。衆皆應允，然後遷移而歸。……自此，一門之事，皆取決友于，雍雍肅肅，後來科甲相繼，友于一脈更甚。((《刪定二奇合傳》의 〈曾孝廉解開兄弟劫〉)

29) 異史氏曰：“天下惟禽獸止知母而不知父，奈何詩書之家，往往蹈之也！夫門內之行，其漸漬子孫者，直入骨髓。……孝雖不仁，其報亦慘；而卒能自知乏德，託子於弟，宜其有操心慮患之子也。”((《聊齋志異》의 〈曾友于〉)

하고 있다.³⁰⁾ 또한 〈曾孝廉解開兄弟劫〉의 ‘篇尾詩’에서도 曾友于의 성심과 인내에 감화하여 한 집안이 만사형통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평하고 있다.³¹⁾ 비록 〈曾友于〉,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 〈曾孝廉解開兄弟劫〉이 문체와 묘사 기법의 차이로 인하여 편폭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서사의 강약이 조금씩 다르지만, 서사 구조와 내용, 인물형상의 강조와 주제의 부각은 대부분 〈曾友于〉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2. 내용의 삽입과 확대: ‘외적인 확장’과 ‘내적인 심화’

‘확대’는 《聊齋志異》의 〈曾友于〉를 재창작 하면서 원작에 없는 내용을 삽입하거나, 간략하게 묘사한 부분을 큰 폭으로 확장한 것을 말한다. ‘확대’에는 ‘외적인 확장’과 ‘내적인 심화’가 있는데, ‘외적인 확장’은 주로 서사 편폭의 길이가 늘어나는 것을 가리키며, ‘내적인 심화’는 서사구조와 내용에 있어서 보다 심화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문언소설에서 화본소설로 재창작되었을 때 편폭은 자연적으로 늘어나고, 서사내용과 구조에 있어서도 보다 복잡하고 세밀하게 전개된다. 〈曾友于〉의 내용을 확대한 작품 중에서 《刪定二奇合傳》의 〈曾孝廉解開兄弟劫〉 보다는 《醒夢駢言》의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이 더 많은 부분에서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曾友于〉의 줄거리에서 일종의 극적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曾成의 등장인데, 曾成의 귀환으로 인한 형제들 간의 불화를 묘사한 장면은 〈曾友于〉 보다 〈曾孝廉解開兄弟劫〉와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이 보다 더 많은 편폭을 할애하고 있으며, 상당히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어느 날, 도적에게 납치되었던 曾成이 홀연히 부인을 데리고 도망쳐서 본가로 돌아왔다. 여러 형제들은 가산을 이미 오래전에 나누었으므로 3일을 모여 의논 하였지만,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알 수 없었다. 曾成과 曾義는 曾成이 돌아온 것을 몰래 기뻐하며, 가서 모셔와 머무르게 하였다. 曾友于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

30) 子孫科甲連綿，卻都發那平白的一支，這便是孝友的報。(《醒夢駢言》의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

31) 苦志誠心須久久，一門感化步亨衢。(《刪定二奇合傳》의 〈曾孝廉解開兄弟劫〉)

다. 曾友于是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와 함께 전답과 집을 마련하여 曾成을 지내게 하였다. 다른 형들은 그들이 曾成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랬다며 화가 나서 집으로 달려와 욕을 하고 모욕을 주었다. 曾成은 오랫동안 도적떼 무리에서 지내서 사납고 거친 행동이 몸에 배었다. 그는 크게 화내며 말하였다. “내가 돌아왔을 때 어느 한 놈이라도 기꺼이 거처를 마련해주지 않았는데, 다행이 동생 셋이 형제의 정을 생각해서 나에게 거처를 마련해주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또 그것을 책망하는 것을 보니, 분명 나를 내쫓을 속셈이구나!” 돌을 집어 曾孝에게 던졌고, 曾孝는 고꾸라졌다. 曾成과 曾義는 각각 장대를 들고 나와 曾忠과 曾信을 붙잡고는 무수한 매질을 가하였다. 曾成은 이어서 현령에게 고소장을 보내고, 현령은 사람을 시켜 曾友于에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도움을 청하였다. 曾友于是 현령에게 나아가 머리를 숙이고는 말이 없었다. 단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聊齋志異》의 〈曾友于〉)³²⁾

어느 날, 산적에게 납치되었던 平成이 처자식을 데리고 돌아왔다. 어머니인 尤氏は 이미 명을 달리했고, 자신은 고향이 그리워 도망 나왔다고 했다. 그때 가족들이 모여 平成을 안전하게 정착시킬 방법을 강구하였다. 平衣 등 세 형제는 모두 부친이 살아계실 때에 재산을 이미 분배하였다는 이유로 재산을 다시 뺏어 내려고 하지 않았다. 3일을 의논하였는데, 그 동안 平成 식구들은 끼니조차 해결할 곳이 없었다.……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와서 살펴보니, 平衣 등 세 형제가 아들과 조카들을 데리고 몰려와 욕을 하였다. “그가 이미 돌아왔으니, 어쩔 수 없이 그를 정착시킬 방법 밖에 없다. 너희들이 좋은 사람 행세를 하려하고, 또 우리들과 상의를 하러 오지 않으니, 결국 남의 집 재산을 너희들끼리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平成은 산적 소굴에서 자라서 성격이 거친데다가 힘 또한 세서 이 말을 듣자 크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끼니조차 해결할 수 없었다. 다행이도 이 세 아우들이 형제의 정을 생각하여 각각 자신의 재산을 떼어내 나에게 주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런데 네놈들이 몰려와서 무슨 헛소리를 지껄이는 것이냐!” 바로 호랑이같이 달려 나가 平衣를 한 대 치자, 三丈 거리만큼이나 멀리 나가 떨어졌다.……현령은 平白에게 이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 지 재차 물었다. 平白은 대답하였다. “현령의 공정한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醒夢駢言》의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³³⁾

32) 一日, 寇所掠長兄成, 忽攜婦亡歸. 諸兄弟以家久析, 聚謀三日, 竟無處可以置之. 仁、義竊喜, 招去共養之. 往告友于. 友于喜, 歸, 共出田宅居成. 諸兄怒其市惠, 登門窘辱. 而成久在寇中, 習於威猛, 大怒曰: “我歸, 更無人肯置一屋; 幸三弟念手足, 又罪責之. 是欲逐我耶!” 以石投孝, 孝仆. 仁、義各以杖出, 捉忠、信, 撻無數. 成乃訟宰, 宰又使人請教友于. 友于詣宰, 俛首不言, 但有流涕. (《聊齋志異》의 〈曾友于〉)

어느 날 한 남녀가 찾아와서 말하였다. 曾成 부부라고 하는 이들은 오래전에 도적에게 납치되어 기회를 틈타 도망 나왔다고 하였다. 曾孝와 曾忠, 曾信은 서로 상의하였다. “우리들은 각각 재산의 한 부분을 서로 나눠가지며 분가한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만약 그를 머무르게 한다면, 전답과 가산까지도 한몫 가지려할 텐데, 차라리 그를 몰아내어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曾成은 크게 화가 나서 말하였다. “내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여러 형제 중 어떤 놈도 나를 머무르게 하지 않았다. 다행히 이 세 아우들이 형제의 정을 생각하여 나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도리어 몰려와서 책망하고 욕을 하니, 이것은 분명히 나를 내쫓을 심산이로구나,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이나?” ……현령은 다시 曾友于에게 여러 번 억지로 물으니, 曾友于是 하는 수 없이 대답하였다. “공정한 판결을 바랄 뿐입니다.”(《刪定二奇合傳》의 〈曾孝廉解開兄弟劫〉 34)

이 장면은 曾成의 귀환→曾孝 형제와 曾友于 형제간의 불화→현령의 중재의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³⁵⁾ 세 작품의 편폭을 비교하면 〈曾友于〉가 210자이고 〈逞兇

33) 忽一日, 那被山寇擄掠去的平成, 領了妻兒回來, 說是尤氏已經身死, 他因思念故土, 在彼逃歸. 當下合族共商量個安頓他的方法. 平衣等三個都推稱, 父親在日, 已把家事分定, 不肯再嘔出來. 議了三日, 平成夫妻, 父子幾口兒, 飯都沒處吃. ……只聽見門外喧嚷, 卻是平衣等三個, 同了子姪, 在那裡罵道: “他既歸來, 少不得有個安頓他法兒, 卻要你們做好人, 也不來和我們通商量, 竟自分他家產.” 平成是在山寇窩里長大的, 氣性又粗, 臂力又大, 得了這話, 大怒道: “我歸到家中, 飯都沒有吃處, 幸得這三個兄弟, 念手足的情分, 各分自己財產來與我, 方得存活, 你們倒來放這樣屁麼!” 便虎一般趕出來, 把平衣一掌, 跌去足有三丈遠. ……縣尹再四問他, 只答道: “聽從父台公斷.” (《醒夢駢言》의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

34) 忽一日, 一男一女到門, 自言: 是曾成夫婦上年被賊擄去, 聽其指使乘空逃回的. 曾孝與忠, 信商量到: “我們分爨已久, 各占一股, 若是留他住下, 連田業他也要占一股; 不如辭了他, 就說無處可以居住罷!” 曾成大怒道: “我今回來, 諸弟等無一人相留, 幸三弟念手足之情, 置屋居住, 你等反來責罵, 是明明將我逐出了, 是何道理?” ……官又苦苦逼問, 友于道: “但求公審.” (《刪定二奇合傳》의 〈曾孝廉解開兄弟劫〉)

35)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어렸을 때 산적에게 납치되어 모두들 죽었다고 여겼던 曾成이 살아서 돌아온다. 曾孝는 재산의 일부분을 나눠줄 것을 두려워서 그들을 내쫓는다. 이 사실을 안 曾仁和 曾義는 그동안 曾孝 형제들에게 핍박과 멸시를 당하였던 중에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다고 여기면서 曾成을 후하게 대접한다. 또한 그들은 曾友于에게 알리고 曾友于와 상의하여 전답을 마련해서 曾成의 정착을 돕는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 화가 난 曾孝는 曾友于 형제들에게 강한 분노를 드러내면서 曾友于 형제들을 괴롭히려고 한다. 그러자 曾成은 曾孝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曾仁和 曾義도 같이 거들어 曾孝 형제들을 때린다. 曾成이 소송을 걸자 현령은 형제들의 재산을 각각 추렴하여 曾

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은 664자이며, 〈曾孝廉解開兄弟劫)은 295자이다. 편폭이 증가한 것만큼 세부적인 묘사나 서사의 전개에도 상당히 확대한 흔적이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曾友于)에는 曾成의 귀환에 대한 간단한 언급만 있을 뿐, 구체적인 귀환 동기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은 친모인 尤氏가 세상을 떠나자, 고향이 그리워 몰래 도망 나왔다고 그 귀향 동기를 밝히고 있다. 〈曾孝廉解開兄弟劫)에서도 曾成 부부가 틈을 타서 몰래 도망 나왔다고 말하고 있다.

둘째, 曾孝 형제들이 曾成의 귀환에 대해서 달갑게 여기지 않고 내쫓는 장면인데, 〈曾友于)에서는 曾孝 형제들이 3일 동안 상의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과 〈曾孝廉解開兄弟劫)에서는 曾孝 형제들은 이미 가산을 나누어 분가했으므로 다시 선뜻 재산을 추렴할 생각이 없는 심리를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셋째, 〈曾友于)에는 인물 대화의 운용이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단지 曾成이 화가 나서 한 말과 현령의 물음에 曾友于가 답한 간단한 대화만 언급하고 있다.³⁶⁾ 그러나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에서는 曾孝 형제들의 불만이 쌍방의 대화로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고, 曾成의 말도 〈曾友于) 보다 약간 긴 편폭을 가지고 있다.³⁷⁾ 〈曾孝廉解開兄弟劫)에서는 曾孝 형제들이 曾成의 귀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상의하는 장면이 대화로 묘사되어 있고, 曾成의 분노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³⁸⁾

넷째,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과 〈曾孝廉解開兄弟劫)은 〈曾友于)

成에게 나누어주라고 판결한다.

36) 大怒曰：“我歸，更無人肯置一屋；幸三弟念手足，又罪責之。是欲逐我耶！”……宰問之，(曾友于)曰：“惟求公斷。”(《聊齋志異》의 〈曾友于〉)

37) 平衣等三個，同了子姪，在那裡罵道：“他既歸來，少不得有個安頓他法兒，卻要你們做好人，也不來和我們通商量，竟自分他家產。”平成是在山寇窩里長大的，氣性又粗，臂力又大，得了這話，大怒道：“我歸到家中，飯都沒有吃處，幸得這三個兄弟，念手足的情分，各分自己財產來與我，方得存活，他們倒來放這屁麼！”(《醒夢駢言》의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

38) 曾孝與忠，信商量到：“我們分爨已久，各占一股，若是留他住下，連田業他也要占一股；不如辭了他，就說無處可以居住罷！”(《刪定二奇合傳》의 〈曾孝廉解開兄弟劫〉)

보다 세부적 서술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曾成의 성격에 대해서 〈曾友于〉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지만,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에서는 曾成이 ‘산적 무리에서 자라서 성격이 포악하고 거침이 없고, 힘 또한 장사라서 曾孝를 발로 내 쳐버리는데, 비록 曾忠과 曾信이 함께 달려들었으나, 그 힘에 당하지 못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³⁹⁾ 이러한 묘사는 〈曾孝廉解開兄弟劫〉에서도 마찬가지다.⁴⁰⁾ 이뿐만 아니라, 曾成이 스스로 관가에 자수하고 현령이 曾友于를 불러 이 일의 처리를 의논하는 부분, 현령이 曾孝, 曾友于 형제들에게 각각 재산의 일부분을 曾成에게 주도록 결정하는 부분, 曾友于가 曾孝는 재산을 적게 추렴하도록 현령에게 부탁하나 현령은 따르지 않는 부분 등이 〈曾友于〉에는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거나 아예 나타나 있지 않다.

曾孝의 아들 형제간의 다툼과 반목의 과정도 〈曾友于〉 보다는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과 〈曾孝廉解開兄弟劫〉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어지고 있다. 세 작품에 등장하는 曾孝의 아들 이름과 사건의 전후 진행에 있어서 비록 약간의 차이를 가지지만, 전체적으로 동일한 줄거리 전개를 보이고 있다. 曾孝의 아들 형제간의 다툼과 반목의 과정을 살펴보면, 曾孝에게는 본처 소생인 繼業과 繼德, 후처 소생인 繼功, 繼績, 계집종 소생인 繼祖, 모두 다섯 아들이 있는데(《醒夢駢言》의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에는 繼祖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들은 아버지 형제들이 그러한 것처럼 자신들도 과당을 지어 매번 싸움질을 일삼았다. 그중에서 繼祖는 同母의 형제들이 없어서 여러 형들에게 항상 업신여김을 당하였다.⁴¹⁾ 본처 소생인 繼業과 후처 소생인 繼功은 서로 미워하다가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 繼功이

39) 平成是在山寇窩里長成的，氣性又粗，臂力又在，得了這話，……便虎一般趕出來，把平衣一掌，跌去足有三丈遠。平身、平缶，和那些子姪一擁上前，思量扳倒平成。怎當他水牛般氣力，把手一掠，一個個倒在地上。(《醒夢駢言》의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

40) 曾成大怒道：“我今回來，諸弟等無一人相留，幸三弟念手足之情，置屋居住，你等反來責罵，是明明將我逐出了，是何道理？”原來，曾成在賊盜中習成勇猛，說罷就抓石塊打去，曾孝撲地，仁，義又執杖與忠，信相鬥，將二人撻背無數。(《刪定二奇合傳》의 〈曾孝廉解開兄弟劫〉)

41) 《醒夢駢言》의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에는 曾繼祖가 등장하지 않으므로, 《聊齋志異》의 〈曾友于〉와 《刪定二奇合傳》의 〈曾孝廉解開兄弟劫〉에서 曾繼祖가 曾友于 집을 방문하고 화목한 집안 분위기에 감화되어 아버지 曾孝의 허락을 얻어 정착하게 되고, 이후 생원에 합격하는 과정은 모두 생략되었다.

繼業을 죽이게 된다. 繼功은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다가 죽게 되고, 繼功의 처 劉氏(金氏)는 繼業의 처 馮氏의 욕설을 참지 못하고 그녀를 찢러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고 만다. 이에 曾孝 아들과 며느리들 간의 싸움은 가문과 가문의 싸움으로 번져서 馮大立이 장정들을 데리고 와서 행패를 부리고, 曾成이 다시 복수하는 등, 曾氏 집안과 馮氏 집안의 소송으로 크게 확대된다.

曾孝는 나이 46세에 아들 다섯을 두었다. 본처와는 큰 아들 繼業과 셋째 아들 繼德이 있었고, 서출 출생으로 둘째 아들 繼功과 넷째 아들 繼績이 있었다. 또한 계집종과의 사이에 繼祖를 낳았다. 모두 결혼하여 일가를 이루었다. 아버지가 이전부터 행한 나쁜 습성을 본받아 각각 당을 지어 날마다 서로 싸움질을 일삼았다. 曾孝도 꾸짖어 저지할 수도 없었다. 단지 繼祖만 형제가 없고 나이가 가장 어려 여러 형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받았다.……曾氏 집안사람들도 그를 따랐다. 馮氏 집안사람들이 모두 쓰러졌다. 曾成은 먼저 馮大立을 잡아 두 귀를 잘라 버렸다. 그의 아들이 아버지를 구하러 달려 왔으나, 繼業과 繼績이 쇠몽둥이를 들고 옆에서 후려쳐서 두 다리를 부러뜨렸다. 馮氏 집안사람들은 모두 상처를 입고 소리를 지르며 흩어졌다. 단지 馮氏의 아들만 길가에 뺨이 있었다. 曾成은 그를 거드랑이 끼고서 바로 馮氏 마을까지 끌어들여 놓고 돌아왔다. 이어서 繼績을 불러 관가에 가서 자수하였다. 馮氏의 고소장도 도달하였고, 曾氏 형제는 바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聊齋志異》의 〈曾友于〉)⁴²⁾

平衣는 네 아들을 두었다. 큰아들은 立德이라고 하고 셋째 아들은 立言이라고 하는데, 모두 본처인 王氏의 소생이었다. 둘째 아들은 立功이라고 하고 넷째 아들은 立行이라고 하는데 모두 첩실인 奎氏의 소생이었다. 이 네 명의 형제는 이전 세대의 나쁜 습성을 배워서 立德과 立言이 한 무리를 이루고, 立功과 立行이 또 한 무리를 이루어 날마다 집안에서 다투었다. 平衣는 여러 차례 서로 사이 좋게 지내야 된다고 타이르면서, “비록 너희 형제들은 한 어미에게서 난 자식들은 아니지만, 모두 내 아들들이다. 이처럼 서로 당을 지어 싸움을 일삼는 것은 그만 두어라!” 이 네 명이 어디 들으려 하겠는가!……平氏 집안사람들이 용맹하게 쫓아갔다. 平成은 친히 馮大立을 붙잡은 다음 작은 칼을 꺼내서 그의 두 귀를 자르고 놓아

42) 孝年四十六，生五子：長繼業，三繼德，嫡出；次繼功，四繼績，庶出；又婢生繼祖。皆成立。效父舊行，各爲黨，日相競，孝亦不能呵止。惟祖無兄弟，年又最幼，諸兄皆得而詬厲之。……諸曾從之，諸馮盡靡。成首捉大立，割其兩耳。其子護救，繼、績以鐵杖橫擊，折其兩股。諸馮各被夷傷，闐然盡散。惟馮子猶臥道周。成夾之以肘，置諸馮村而還。遂呼績詣官自首。馮狀亦至。於是諸曾被收。(《聊齋志異》의 〈曾友于〉)

주었다. 그의 아들 馬奉言이 달려와 구하러 하였지만, 오히려 立行의 일격에 두 다리가 부러져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平成 등은 이미 일이 뜻대로 되자 바로 집으로 돌아갔다. 馮氏 집안사람들은 그들이 멀리 간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돌아왔다. 다리가 부러진 馬奉言을 부축해서 집으로 돌아갔다. 사람을 관가로 보내서 밤새도록 억울함을 외치게 하였다. 현령은 들어보니 또 平氏 집안일이라 골치가 아팠다. 바로 관원을 보내 平氏 형제들을 관가로 잡아들이게 하였다.《醒夢駢言》의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⁴³⁾

曾孝는 다섯 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큰아들은 繼業이라고 하고 셋째 아들은 繼德이라고 하며 모두 정실 소생이다. 둘째 아들은 繼功이라고 하며 넷째 아들은 繼績이라고 하며 첩실에서 난 자식이었다. 또 계집종 사이에서도 난 아들이 있었는데 繼祖라고 하였다. 이들은 각각 장성하여 일가를 이루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행태를 보고 크게 영향을 받은지라, 그대로 따라 행동하였다. 정실과 첩실 소생이 각각 당을 지어 날마다 서로 다투었다. 소란이 끊이지 않았고, 曾孝는 다툼을 그만두게 할 여력이 없었다.……형제들은 몽둥이를 들고 따라갔다. 馮氏 집안사람들은 도망쳤다. 曾成은 친히 馮大立을 잡아 그의 두 귀를 잘라버렸다. 繼績은 손에 쇠몽치를 들고 馮氏의 다리를 부러뜨리자, 그가 길 옆에 꼬꾸라졌다. 曾成은 그를 겨드랑이에 끼고서 馮氏 마을로 가서 내팽개쳤다. 繼績에게 관가에 알리게 하였고, 馮氏 집안도 고소장을 갖추어 관가로 보냈다.《刪定二奇合傳》의 〈曾孝廉解開兄弟劫〉)⁴⁴⁾

43) 平衣有四個兒子，長的叫立德，三的叫立言，都是正室王氏所生；第二個叫立功，第四個叫立行，乃側氏全氏所出。這弟兄四人，也學了上輩的傳頭，立德和立言做一路，立功和立行做一路，終年在家吵鬧。平衣幾番勸他們要和氣，說道：“你們雖不是一母產下，但都是我兒子，休這般分門戶的鬧。”四人那裡肯聽。……平家的人奮勇去追。平成親手捉住馬大立，便拔出小刀，把他割去兩隻耳朵，放他回家。他兒子馬奉言來救，却被立行一棒打去，打斷了兩隻腿，倒在地上。平成等見已得了便宜，也便回家。馬家的人見他們去遠了，方才轉來，扛了那斷腳的歸家。連夜打發人到縣裡叫喊。縣尹聽得又是平家的事，好不著惱，立刻出差，把諸平捉拿到官。《醒夢駢言》의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

44) 且說，曾孝生五個兒子：長名：繼業，三名：繼德，正妻所出；次名：繼功，四名：繼績，娶妾所出；又收婢生子名：繼祖。各各長成，見得父親所爲，習染既深，效法而行。也是嫡庶各爲一黨，逐日爭長論短，吵鬧不休，曾孝不能禁止。……兄弟輩執杖相從，馮姓子侄跑逃。曾成手捉大立，將他兩耳割下。繼績手拿鐵杖，又打傷馮氏兩股，倒在路旁，曾成用肘夾起，跑到馮氏村內，方才丟下。隨命繼績告官，馮家也具狀投縣。《刪定二奇合傳》의 〈曾孝廉解開兄弟劫〉)

이 장면은 曾孝의 아들 형제들 간의 불화, 살인 사건으로 인하여, 나중에는 사돈 지간의 싸움으로 과급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⁴⁵⁾ 세 작품의 편폭을 살펴보면, 〈曾友于〉는 534자,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은 3,298자, 〈曾孝廉解開兄弟劫〉 1,043자이다.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은 〈曾友于〉의 약 6배에 해당되고, 〈曾孝廉解開兄弟劫〉은 2배에 해당된다. 〈曾友于〉가 문언문으로 창작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이 원작의 많은 부분을 확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에는 〈曾友于〉와 〈曾孝廉解開兄弟劫〉에 묘사된 曾繼祖에 대한 부분이 삭제되었는데, 만약 〈曾友于〉에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면 실제로는 6배가 훨씬 넘을 것이다.

서사의 확대에는 편폭의 길이뿐만 아니라, 서사내용에 있어서도 뚜렷하다. 먼저 〈曾友于〉의 서사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曾孝 아들들 간의 불화→曾繼祖의 曾友于 집 방문, 정착, 生員 통과→曾孝 아들 형제들 간의 살인→馮大立과의 싸움, 소송의 구조로 되어 있다.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은 曾孝 아들들 간의 불화, 살인→曾忠이 曾友于에게 도움을 요청→曾孝 아들 繼業의 사망→曾友于의 위로 방문→며느리들 간의 싸움, 살인, 자살→馮大立과의 싸움, 소송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 〈曾孝廉解開兄弟劫〉은 〈曾友于〉와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과 마찬가지로 첫 부분에는 曾孝 아들들 간의 불화로 시작하고, 이어서 曾繼祖의 曾友于 집 방문, 정착→曾忠의 연락, 도움 요청→曾孝 아들 형제, 며느리들 간

45) 《聊齋志異》의 〈曾友于〉, 《醒夢駢言》의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 《刪定二奇合傳》의 〈曾孝廉解開兄弟劫〉의 세부적인 묘사와 서술 순서에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1. **曾孝 아들들 간의 불화, 曾繼祖의 이탈**: ①曾孝 아들들 간의 불화→②曾繼祖의 처가 방문→③曾友于의 집 방문→④曾友于 집안이 화목함을 보고 계속 머무르고자 함→⑤曾友于의 권고로 집으로 돌아감→⑥曾繼祖 부부는 장모의 환갑잔치 참가를 핑계로 다시 曾友于에게로 옴; 2. **曾孝 아들 형제들 간의 살인**: ①曾繼業과 曾繼功의 불화로 曾繼功이 曾繼業을 죽임→②관가에서 曾繼功을 잡아서 고문을 가하고, 결국 감옥에서 죽음→③曾繼功의 처 劉氏는 曾繼業의 처 馮氏를 질러 죽이고 자신도 자살함; 3. **형제들 간의 불화가 외부로 확대**: ①馮氏의 아버지 馮大立은 딸의 죽음을 슬퍼하다가, 일족을 이끌고 曾家에 가서 행패를 부림→②曾成은 화가 나서 집안사람들을 데리고 馮氏 사람들을 때려눕힘(馮大立의 두 귀를 자름)→③曾繼績과 함께 관가에 가서 馮氏와 소송을 벌이고, 曾氏 일가는 감옥에 갇힘.

의 싸움, 살인→馮大立의 행패, 曾成의 복수, 曾家와 馮家의 소송으로 전개된다.

서사 구조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曾友于〉와 〈曾孝廉解開兄弟劫〉은 曾孝 아들 형제와 며느리들의 싸움, 살인 및 馮大立과의 대립 등 일련의 과정을 曾友于에게 도움을 청하러 간 曾忠이 그간의 자초지정을 말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반면에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은 사건에서 사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시간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曾友于〉와 〈曾孝廉解開兄弟劫〉에서는 曾忠이 曾友于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먼저 일어나고, 서술 시점이 다시 과거로 회귀하여 사건의 전모를 曾友于에게 말하는 순서로 되어 있지만,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은 현재 진행 구조로 되어 있어서, 曾忠이 曾友于에게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다. 이처럼 〈曾友于〉, 〈曾孝廉解開兄弟劫〉,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은 서술자의 서술 시점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은 〈曾友于〉와 〈曾孝廉解開兄弟劫〉에 비해서 훨씬 복잡한 서사 기교를 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聊齋志異》의 〈曾友于〉의 서사 내용이 크게 확대되고 묘사가 세밀하게 전개된 작품은 《醒夢駢言》의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은 일방적인 〈曾友于〉의 사건 전개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용 전개에 어느 정도 변화를 주면서, 원작에 없는 복잡하고 다각적인 서사 기교를 운용하고 있다. 《刪定二奇合傳》의 〈曾孝廉解開兄弟劫〉은 〈曾友于〉의 줄거리 구조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인물과 사건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서사 구조를 확정하고, 내용을 확대하는 측면에서는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曾友于〉 보다는 발전된 서사기교를 보여주고 있다.

3. 서사 내용의 축소: ‘축약’과 ‘삭제’

‘축소’는 《聊齋志異》의 〈曾友于〉를 개작하면서 원작의 내용을 간단하게 서술하거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 서사 구조를 간략하게 제시하는 경우이며, 혹은 원작의 어떤 인물, 사건, 서사 등을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醒夢駢言》의 〈逞

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에서도 간혹 보이지만, 주로 《刪定二奇合傳》의 〈曾孝廉解開兄弟劫〉에서 나타난다. 서사 내용을 축소하는 것은 '鋪敘'가 작품의 줄거리 진행에 있어 중요한 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서사의 편폭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축소하고 있으며, 심지어 어떤 내용은 아예 삭제하기도 한다.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과 〈曾孝廉解開兄弟劫〉 모두가 〈曾友于〉보다 축소된 경우는 나타나지 않는다.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과 〈曾孝廉解開兄弟劫〉 중에서 어느 한 작품이 축소가 일어나면 나머지 다른 작품은 확대가 일어나서 축소와 확대가 서로 교차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이 축소되고 〈曾孝廉解開兄弟劫〉이 확대된 것을 살펴보면, 〈曾友于〉의 마지막 부분에 曾友于가 曾忠과 曾孝가 화해하는 장면인데, 이 부분은 〈曾友于〉에서는 전체에 대비하여 비교적 상세히 서술되어 있지만,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에는 상당히 간단히 묘사되어 있다. 〈曾孝廉解開兄弟劫〉는 〈曾友于〉와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에 비해 큰 편폭을 할애하고 있지만, 작품의 전체 편폭에 있어서는 여전히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는 편이다.

曾友于是 曾忠을 머무르게 하면서 낮에는 같이 식사를 하고, 밤에는 같이 잠을 잤다. 曾忠은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그는 曾友于 집에서 10여 일을 머물렀는데, 삼촌과 조카가 함께 지내는 모습이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지내는 것과 같고, 이복형제들도 친형제와 같이 지내는 것을 보고서 처연하게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이전의 내가 사람 같지 않았음을 지금에서야 비로소 알겠구나!” 曾友于是 그가 후회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서로 맞대고 슬피하였다. / 繼祖는 숙부를 따르지만 본가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曾孝는 曾友于에게 말하였다. “내가 부덕해서 집안을 빛낼 아들을 두는 것은 무리라네. 아우가 가르치는 일에 능숙하니, 잠시만 친 아들처럼 삼아서 가르쳐주게나. 繼祖가 벼슬길에 약간이라도 진전이 있으면 그때 돌려보내 주게나.” 曾友于是 曾孝의 의견에 따랐다. (《聊齋志異》의 〈曾友于〉)⁴⁶⁾

46) (曾友于)乃留之, 晝與同餐, 夜與共寢. 忠頗感愧. 居十餘日, 見其叔姪如父子, 兄弟如同胞, 悽然下淚曰: “今始知從前非人也.” 友于喜其悔悟, 相對酸惻. / 孝乃謂友于曰: “我不德, 不應有亢宗之子; 弟又善教, 俾姑爲汝子. 有寸進時, 可賜還也.” 友于從之. (《聊齋志異》의 〈曾友于〉)

平身은 잠시 동안 여기서 지내라는 平白의 말에 따라 三泊灣에 머물렀다. 平白은 낮에는 그와 함께 같은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고, 밤에는 그와 함께 같은 침상에서 잠을 잤는데, 매우 다정하게 대하였다. 立善과 두 형제가 비록 어머니를 다룰 지라도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자신과 같지 않음을 생각하니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오늘에서야 그동안 내가 사람이 아니었음을 비로소 알겠구나!” 平白은 그가 참회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매우 기뻐하고, 자신도 그와 함께 눈물을 흘렸다. / 모든 형제들이 平白을 존경하였고, 그에게 본가로 돌아와 같이 살자고 부탁하였다. 平白은 여러 형제들과 향을 사르며 맹세하였다. 이 이후로 각각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될 것임을 약속하고서 본가로 옮겨와 비로소 같이 살게 되었다. (《醒夢駢言》의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⁴⁷⁾

曾忠은 曾友于의 집에서 머무르게 되었는데, 낮에는 같이 식사를 하고 밤에는 같은 자리에서 잠을 청하였다. 지난날의 시기와 원망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曾忠은 본래 曾友于가 이전의 일들을 염두에 두고 있을까 두려워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다.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면서 심어 일을 계속 머물렀다. 숙부와 조카가 마치 친부자와 형제처럼 대하며 친형제보다 더 정이 돈독한 것을 보고 크게 깨우쳤다. “오늘에서야 비로소 내가 사람구실도 못했음을 알겠구나! 형제와 숙부와 조카가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야 하거늘!” 말을 마치자 처연하게 눈물을 흘렸다. 曾友于是 이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 “아우가 만약 지난 말의 잘못을 뉘우친다면 그만인 것을, 기습아과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로부터 五輪의 道理를 매일같이 그와 더불어 해석하며 강론하니 曾忠도 깊이 감복하였다. / 曾孝는 曾友于에게 눈물을 보이며 말하였다. “내 평생 성격이 삐뚤어져 은덕을 저버린 것이 참으로 많으니, 어찌 자손들이 벼슬과 명망이 높기를 바라겠는가? 아우는 도량이 크고 넓으니, 자식과 조카를 잘 가르치리라고 생각하네. 차라리 그 뜻을 따라서 자네에게 보내어 아들로 삼는 편이 낫겠네. 벼슬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후에 돌려보내주게나. 그렇게 되면 나의 죄과를 덮는 셈이라 저승에 가서라도 조상 될 닳이 있다네. 아우! 거절하지 말게나!” (《刪定二奇合傳》의 〈曾孝廉解開兄弟劫〉)⁴⁸⁾

47) 平身便依言住在三泊灣。平白日裡和他共桌而食，夜裡與他同榻而眠，十分友愛。又見立善與個兩兄弟是前後母的，都一團和氣，全不似自己那般樣子，不覺感動，垂下淚來，道：“今日才曉得一向竟不是人了。”平白見他悔悟，心中甚喜，也陪他落了幾滴淚。/ 衆弟兄都愛敬平白，勸他仍來城裡同居。平白與衆弟兄焚香立誓，約今後各人改過自新，方移家到城同住。(《醒夢駢言》의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

48) 逐留忠住下，日則同席吃飯，夜則同屋共寢，向日嫌怨，毫不在意。曾忠原恐兄長記懷，不料如此相待，又羞又感，連住十餘日。又見他叔侄猶如父子弟兄，勝過同胞，恍然大悟，道：“今日才曉得我輩全不象人，兄弟叔侄才是這樣相處的。”說罷，淒然淚下。友于聞言，喜道：“兄弟果然知悔，便是一般樣了，何必傷感？”自此，便將五倫道理，每日與

〈曾友于〉에서 형제간의 화해 장면이 전체 편폭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율과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과 〈曾孝廉解開兄弟劫〉이 전체 편폭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曾友于〉가 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⁴⁹⁾ 〈曾友于〉에는 형제들과 曾友于가 화합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曾友于와 曾忠, 曾孝의 화해로 나뉜다. 曾忠은 송사를 피해 曾友于가 있는 三泊灣으로 도피한다. 그곳에서 형제간에 우애 있고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후회하고 曾友于와 극적인 화해를 이룬다. 曾孝는 자신의 아들인 曾繼祖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자, 曾友于에게 부탁하면서, 자신의 부덕함을 뉘우친다.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에는 曾繼祖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안착하는 장면, 曾繼祖의 아들이 曾孝의 집에서 나와 曾友于의 집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모두 삭제되어 있다. 형제간의 화합장면에서는 曾忠과의 화해가 묘사되어 있을 뿐, 다른 형제와의 화합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특히 曾孝와의 화해는 더욱 축소되어 형제들 간의 맹세를 통해 曾友于에 대한 惡感의 해소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曾孝廉解開兄弟劫〉은 형제간의 화해를 묘사한 장면에 세 작품 중에서 가장 큰 편폭을 가지고 있는데, 〈曾友于〉에서처럼 크게 曾忠과 曾孝와의 화해로 나뉘고 있다. 曾友于가 曾忠과 화해한 부분은 170자이고, 曾孝와의 화해는 128자이다. 曾忠과 曾孝의 후회와 반성을 하는 장면에서는 〈曾友于〉 보다 직접 대화를 많이 삽입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편폭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대화의 삽입으로 작품의 현장감을 살리는 동시에 직접적으로 후회의 감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 서사내용이 증가하고 〈曾孝廉解開兄弟劫〉이 축소된 경우를 살펴보면, 〈曾孝廉解開兄弟劫〉은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과는 달리, 〈曾友于〉의 서사내용을 유지하거나, 축소 혹은 삭제한

他講解數遍, 曾忠甚是帖服. / 曾孝向友于流淚道: “我生平性情乖謬, 損德不少, 如何望子孫顯達? 賢弟寬宏度量, 善教子侄, 不如從其志願, 寄與賢弟爲子. 待有進步, 然後賜還, 蓋我之愆, 我好見先人於地下. 賢弟勿辭!”(《刪定二奇合傳》의 〈曾孝廉解開兄弟劫〉)

49) 曾友于 형제간의 화해 장면이 작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聊齋志異》의 〈曾友于〉는 전체 글자 수 2,439자에서 161자로 6.6%이며, 《醒夢駢言》의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은 전체 글자 수 11,046자에서 165자로 1.5%이다. 《刪定二奇合傳》의 〈曾孝廉解開兄弟劫〉은 전체 글자 수 5,854자에서 298자로 5.1%이다.

부분이 많다. 특히 축소된 장면이 많은데, 이 중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曾孝가 처의 장례를 치를 때, 자신의 친 형제들과 曾友于 형제들의 갈등과 대립을 겪는 장면이다.

曾孝의 처가 병으로 죽자, 曾友于是 曾仁, 曾義와 함께 문상을 하러 가려고 하였다. 曾仁과 曾義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큰 형님들께서는 백일 동안 상복을 입고 상례를 받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큰 형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해도 우리들은 대공(大功) 9개월의 복상(服喪)기간만 지키면 되는 것이지, 꼭 영전에 가서 슬피 울어야한단 말입니까?”라고 하였다. 曾友于是 타일렀다. “아우 등이 스스로 가서 상례를 다하게나. 비록 외부 사람이 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지만, 그와 같이 행동할 필요가 있겠는가?” 曾仁과 曾義는 냉소를 지으며, 각자 흩어졌다. 曾友于是 혼자서 영전에 가서 슬피 울며 상례를 다 하였다. 다음 날, 담 밖에서 曾仁과 曾義가 악기를 연주하며 즐겁게 떠드는 것이 들렸다. 마치 지난 날 曾孝의 행동과 같았다. 曾孝는 크게 화가 나서, 못매를 때리려고 여러 형제들을 이끌고 나갔다. 曾友于 역시 지팡이를 들고 따라 나갔다. 曾仁은 여러 형들이 달려 나오는 기세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틈을 타서 먼저 도망쳤다. ……曾孝는 이때 크게 화가 나서 고향지르며 曾友于를 때렸다. 曾忠과 曾信도 曾孝와 함께 덤벼들며 주먹과 몽둥이로 마구 때렸다. 고향소리가 사방에 진동하여 이웃마을에까지 이르렀다. 曾友于가 다친 것을 보자 사람들이 급하게 달려와 말리고 曾友于를 부축하여 집으로 돌아갔다. 曾友于是 형의 처소로 가서 용서를 빌었다. 曾孝는 노기가 충천하여 바로 내쫓아버리자, 曾友于是 집으로 돌아와서 치료하였다. 曾義의 부상이 더욱 심해지자, 曾仁은 고소장을 관가에 제출하였다. 현령은 재빨리 曾孝, 曾忠, 曾信을 잡아 들여 曾友于와 심문하려고 하였다. 曾友于是 얼굴을 다쳐서 채 낫지 않아 관가에 갈 수가 없었다. 단지 청원서를 보내어 송사를 중지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현령은 曾友于의 의견을 듣고서 송사를 중지하였다. (《刪定二奇合傳》의 〈曾孝廉解開兄弟劫〉)⁵⁰⁾

50) 曾孝의妻子病故, 友于邀仁, 義兩弟前往奔喪, 仁, 義道: “母親去世, 大哥們是百日期服, 尙且不來成服. 大嫂死了, 我們不過九個月大功, 爲何定要哀臨?” 友于道: “賢弟等自去盡禮, 自有外人議論他, 何必與他一樣?” 仁, 義冷笑一聲, 各自散去. 友于隧自往柩前, 哀哭盡禮. 次日, 隔牆聞聽仁, 義二人吹彈歡笑, 也象曾孝前日一般. 曾孝大怒, 率領諸弟前往爭毆, 友于也是持杖和從, 曾仁見得諸兄來勢不好, 乘勢先逃. ……曾孝此時咆哮大怒, 就打友于, 忠, 信也幫助上來拳杖交下, 喊聲震動, 鄰里俱到, 見得友于受傷, 急忙大家解勸, 扶友于回去, 友于隨到兄處請罪, 曾孝怒氣衝衝, 即時逐出, 友于才回家調理. 曾義受傷更重, 曾仁呈告在縣, 縣官票拘, 曾孝並忠, 信諸人隨命友于質審. 此時, 友于面目損傷尙未全愈, 不能到堂, 只作稟狀一紙, 哀求息訟, 縣官聽

위의 인용한 부분은 曾孝 형제들과 曾友于 형제들의 갈등과 대립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曾孝 형제들과 曾友于 형제들의 원한과 복수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⁵¹⁾ 세 작품 모두 동일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데,⁵²⁾ 〈曾友于〉는 문언소설이기 때문에 대화가 비교적 적고, 〈曾孝廉解開兄弟劫〉은 화본소설이므로 대화가 자주 운용되고 있다. 〈曾孝廉解開兄弟劫〉에서는 曾仁和 曾義가 曾友于의 설득에 거절하는 부분, 曾友于가 曾義의 매질을 막으며 曾孝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에서 대화가 운용되었다. 편폭의 길이에 있어서는 〈曾友于〉가 312자이고, 〈曾孝廉解開兄弟劫〉이 455자이다. 〈曾友于〉는 전체 편폭(2,439자)에서 이 장면 묘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3%이다. 〈曾孝廉解開兄弟劫〉 전체 편폭(5,854자)에서 이 장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8%이다. 전체 편폭의 길이와 부분 묘사 편폭의 길이를 비교하면 〈曾孝廉解開兄弟劫〉이 〈曾友于〉 보다 축소되었다. 게다가 〈曾孝廉解開兄弟劫〉은 ‘入話’ 부분은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하므로 ‘入話’를 제외한 분량에서 위 장면이 차지하는 비율은 더욱 낮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전체적인 줄거리의 진행과 서술 구조는 어느 정도 일치하지만, 인물의 대화, 세부적 묘사, 서사기법의 운용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 이외에도 馮大立과 曾成이 서로 대립하며 보복을 하는 장면에서도 〈曾孝廉解開兄弟劫〉은 〈曾友于〉 보다 상당히 축소되었다. 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繼業

于友于, 批准息案. (《刪定二奇合傳》의 〈曾孝廉解開兄弟劫〉)

- 51) 曾孝 딸의 죽음을 周家에게 책임을 돌리고, 보복하고자 형제들을 가담을 권하지만, 曾友于 형제들은 반대하고 그 일에 앙심을 품은 曾孝 형제들은 曾友于의 어머니 張夫人의 상례에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른다. 이에 曾孝의 아우인 曾仁和 曾義도 같은 방법으로 曾孝 처의 장례에서 걸레를 한다. 이에 화가 난 曾孝 형제들이 曾友于와 曾義에게 매질을 가하고, 이어서 曾義가 관가에 고소하고 曾友于是 소송을 취하한다.
- 52) 曾孝의 처가 병으로 죽자 曾友于是 曾仁, 曾義 형제들에게 문상을 가자고 설득하였으나, 두 동생들은 거절하였다. 다음날 曾仁和 曾義는 喪家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웃고 떠드는데, 이전의 曾孝 형제들이 張夫人의 장례에서 했던 행동과 같았다. 이에 화가 난 曾孝 형제들은 曾仁和 曾義를 쫓고, 담을 넘어 도망가려고 했던 曾義를 붙잡아 흠씬 두들겨 팬다. 曾友于是 이 사실을 알고 달려가 막으며 용서를 호소했지만, 曾孝는 더욱 화를 내며 曾友于에게 조차 매질을 하였다. 도망간 曾仁은 관가에 고소하고 曾孝 형제들은 관가로 불려갔다. 현령은 曾友于를 불러내어 질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는 상처가 낫지 않아 출두하지 못하였다. 曾友于是 현령에게 단지 소장을 취하해 달라는 글을 보내었고 소송은 취하되었다.

과 繼功의 다툼으로 繼業은 죽고, 繼功도 감옥에서 고문으로 죽게 된다. 繼業의 처 馮氏는 繼功의 처에게 분풀이를 하고, 繼功의 처는 칼로 馮氏를 찔러 죽이고 자신도 자결한다. 馮氏의 아버지 馮大立은 딸을 잃은 슬픔에 수십여 장정들을 거느리고 曾家로 달려가 행패를 부린다. 曾成과 형제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드니, 馮氏 집안사람들은 모두 도망간다. 曾成은 馮大立을 잡아서 양쪽 귀를 자르고, 馮氏 집안과 曾氏 집안은 서로 고소를 하게 된다.

〈曾友于〉에서 이 장면에 대한 묘사는 모두 301자이고,⁵³⁾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은 732자이며, 〈曾孝廉解開兄弟劫〉은 190자이다.⁵⁴⁾ 〈曾友于〉에 비해서 〈曾孝廉解開兄弟劫〉의 편폭이 상당히 좁다. 내용전개에 있어서도 〈曾友于〉에서는 인물의 특징과 사건의 진행과정이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된 반면에, 〈曾孝廉解開兄弟劫〉에서는 과정은 상당히 간략하게 언급되었고, 사건의 결과에만 치중하여 서술하고 있다. 물론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은 이 두 작품보다 상당히 많은 편폭을 할애하고 있어서 인물묘사와 사건전개에 있어서 보다 더 세밀하다.

‘삭제’는 《聊齋志異》의 〈曾友于〉를 재창작하는 과정에서 줄거리의 일부분이나 인물, 배경, 사건 등을 생략된 경우를 말한다. 《聊齋志異》의 〈曾友于〉의 도입부분, 즉 증노인의 죽음과 장례를 치르는 장면을 살펴보면, 〈曾友于〉에는 증노인의 죽음, 증노인의 입관, 曾友于의 권계가 간략하게 묘사되어있다. 그러나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에는 이 부분이 생략되었으며, 〈曾孝廉解開兄弟劫〉에서는 이 장

53) 馮父大立，悼女死慘，率諸子弟，藏兵衣底，往捉孝妻，裸撻道上以辱之。成怒曰：“我家死人如麻，馮氏何得復爾！”吼奔而出。諸曾從之，諸馮盡靡。成首捉大立，割其兩耳。其子護救，繼、績以鐵杖橫擊，折其兩股。諸馮各被夷傷，闐然盡散。惟馮子猶臥道周。成夾之以肘，置諸馮村而還。遂呼績詣官自首。馮狀亦至。於是諸曾被收。惟忠亡去，至三泊，徘徊門外。適友于率一子一姪鄉試歸，見忠，驚曰：“弟何來？”忠未語先淚，長跪道左。友于握手曳入，詰得其情，大驚曰：“似此奈何！然一門乖戾，逆知奇禍久矣；不然，我何以竄蹟至此。但我離家久，與大令無聲氣之通，今卽蒲伏而往，徒取辱耳。但得馮父子傷重不死，吾三人中倖有捷者，則此禍或可少解。”(《聊齋志異》의 〈曾友于〉)

54) 馮氏之父，名叫大立，痛女兒慘死，率領數十人來捉曾孝妻子，脫去衣服痛打，上下凌辱，無所不至。家人報與曾成，曾成大怒道：“我家死人如麻，馮姓何得如此欺負？”虎吼而出，……縣票飛下，曾氏弟兄收禁管押，惟有曾忠一人，獨逃至此。(《刪定二奇合傳》의 〈曾孝廉解開兄弟劫〉)

면이 몇 단락 뒤로 물러나 있다. 이 장면은 증노인의 죽음에 대한 曾友于의 인간됨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에는 이 부분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형제들과의 불화와 그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그의 인간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증노인은 昆陽에 터를 잡고 대대로 벼슬한 인사다. 증노인이 죽고 염을 하기 전에 두 눈 언저리에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다. 그에게는 여섯 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 뜻을 알지 못하였다. 이름이 曾悌이고 字가 友于인 둘째 아들은 마을의 명사였는데, 이 일이 불길하다고 여겨 형제들 모두가 자중하라고 하면서 돌아가신 분에게 폐를 기치지 말자고 권계하였다. 그러나 형제들 절반은 고루하다면서 그를 비웃었다.((《聊齋志異》의 〈曾友于〉)⁵⁵⁾

平長髮은 아들들이 서로 미워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아직 살아 있을 때 일찌감치 家業을 나누어 주었다. 몇 년이 지나서 平長髮은 죽었다.((《醒夢駢言》의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⁵⁶⁾

증노인이 병으로 죽고 아직 염을 하지 않았을 때 갑자기 눈언저리에서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 내렸다. 집안 밖의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曾友于是 크게 놀라며, “이 일은 아주 불길하니 앞으로 집안에 필히 의외의 화가 미칠 것이다. 나를 비롯한 여러 형제들은 반드시 조심하고 삼가해야 할 것이다. 모두가 도리를 다 한다면, 고인의 원망과 미움으로 인해 화가 미치는 것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그 말이 고지식하다고 비웃었다. ((《刪定二奇合傳》의 〈曾孝廉解開兄弟劫〉)⁵⁷⁾

증노인에 관한 묘사는 세 작품 모두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증노인이 병고로 죽고 입관하기 전 눈물을 흘렸는데, 아들들은 그 뜻을 이해하

55) 曾翁, 昆陽故家也. 翁初死未殮, 兩眶中淚出如瀉, 有子六, 莫解所以. 次子悌, 字友于, 邑名士, 以爲不祥, 戒諸兄弟各自惕, 勿貽痛於先人; 而兄弟半迂笑之.((《聊齋志異》의 〈曾友于〉)

56) 平長髮兒子們不合睦, 便乘自己未死, 早早把家業劃定. 過了幾年, 長髮身死.((《醒夢駢言》의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

57) 曾翁病故, 尚未棺殮, 忽然眼眶中流淚不止, 內外人等莫測其故. 友于大驚道: “此事大不吉祥, 將來家中必有奇禍, 我等兄弟須要小心謹慎, 各人盡道, 以免先人怨恫降禍.” 不少衆人不信, 反笑其言迂闊.((《刪定二奇合傳》의 〈曾孝廉解開兄弟劫〉)

지 못하였다. 단지 曾友于만이 증노인의 눈물을 보고 불길하다고 여겨, 형제들에게 앞으로 언행에 각별히 조심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형제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에서는 이 장면에 대한 서술을 단지 ‘長髮身死(平長髮(曾翁)이 죽었다)’는 말로 대신하고 있다. 증노인의 사람됨과 曾友于의 인간성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이 장면은 비록 〈曾友于〉와 〈曾孝廉解開兄弟劫〉에서 차지하는 분량이 많지 않지만, 작품의 도입 부분에 삽입되어 앞으로의 사건 진행의 복선 역할뿐만 아니라, 더불어 인물의 특징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에서는 이 부분이 삭제되고 서사의 시각을 형제들 간의 대립과정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예는 다른 부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曾繼祖가 처갓집에 갔다가 曾友于의 집을 방문하게 되고, 曾友于 집안의 형제간에 우애가 깊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 그는 曾友于의 설득으로 겨우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曾友于 집으로 돌아온다. 〈曾友于〉는 이 장면의 전개 과정이 모두 기록되어 있지만,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은 이 부분이 아예 삭제되었다. 〈曾孝廉解開兄弟劫〉에서는 인물의 대화와 심리 묘사를 다각적으로 운용하여 사건 전개뿐만 아니라 그 속의 내재된 인물 형상의 심리까지도 상세히 그려내고 있다.

(曾繼祖) 처가는 三泊에 가까웠으므로, 처가를 방문하고 길을 돌아서 숙부(曾友于)집에 이르렀다. 집안에 들어서자, 숙부집의 두 형과 아우가 거문고를 타고 시를 읊으며 서로 즐겁게 지내고 있었다. 曾繼祖는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숙부가 재촉하자, 더 머무르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숙부는 타이르면서 말하였다. “너의 부모가 모두 모르고 계신다. 내가 음식이 아까워서 그러겠느냐!” 曾繼祖는 집으로 돌아갔다. 수개월이 지난 뒤, 아버지(曾孝)에게 말하였다. “저는 이번에 가면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따지며 묻자, 자신의 숨은 뜻을 털어놓았다. 아버지(曾孝)는 숙부(曾友于)와 오래전부터 다툼이 있었음을 염려하면서 오랫동안 머무르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曾繼祖는 “아버지의 염려는 지나치십니다. 숙부는 성현입니다.” 그는 처를 데리고 三泊으로 가 버렸다. (《聊齋志異》의 〈曾友于〉)⁵⁸⁾

58) (繼祖)岳家近三泊, 會詣岳, 迂道詣叔. 入門, 見叔家兩兄一弟, 絃誦怡怡, 樂之, 久居不言歸. 叔促之, 哀求寄居. 叔曰: “汝父母皆不知, 我豈惜飢飯瓢飲乎!” 乃歸. 過數月,

曾繼祖는 처가가 三泊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하루는 처가로부터 돌아와서 숙부를 만나기 위해 길을 에돌아 曾友于의 집에 도착하였다. 집안에 들어가 서로 인사를 하고 같이 공부하는 두 형과 아우를 보았다. 그들은 서로 예의와 법도로 다하며, 화목하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다투는 법이 없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대단히 부러웠다.……曾繼祖는 숙부의 권고를 지나칠 수 없어서 집으로 돌아왔고 다시 수개월이 흘렀다. 曾繼祖 부부는 처가의 생신 축하연에 가기 위하여 잠시 부모님께 이별을 고하였다. “저는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고 三泊에 살 것입니다.” 이전에 숙부 집에 지내면서 부러웠던 일을 모두 이야기 했다. 曾孝는 두 눈썹을 찡그리며 말하였다. “이번 일은 아마 힘들 것 같구나. 너의 숙부가 지난 날 본가에 있을 때, 나와 수차례 원한을 품었다. 서로 간의 원망이 깊으니, 아마 네가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은 힘들 것 같구나.” “아버지의 걱정이 지나치십니다. 숙부는 정말로 성현입니다. 제가 머무르는 것을 결코 싫어하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께서 바로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으니, 언젠가는 달아날 것입니다.”(《刪定二奇合傳》의 〈曾孝廉解開兄弟劫〉)⁵⁹⁾

이뿐만 아니라, 이후 曾繼祖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안착하는 장면, 曾繼祖의 아들이 曾孝의 집에서 도망 나와 曾友于의 집으로 가는 장면은 〈曾友于〉에서는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 있지만, 〈曾孝廉解開兄弟劫〉에서는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고,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에서는 이 부분이 삭제되었다.

VI. 나오는 말

《醒夢駢言》의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과 《刪定二奇合傳》의 〈曾孝廉解開兄弟劫〉은 《聊齋志異》의 〈曾友于〉와 다른 분명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曾

夫妻往壽岳母。告父曰：“兒此行不歸矣。”父詰之，因吐微隱。父慮與叔有夙隙，計難久居。祖曰：“父慮過矣。二叔，聖賢也。”遂去，攜妻之三泊。(《聊齋志異》의 〈曾友于〉)

- 59) (繼祖)因妻家與三泊相近，一日，從岳父家回來，紆轉路途到友于處，看視叔父，入門相見，見得二位兄長，一個幼弟同堂讀書，循循禮讓，恰恰和順，從不爭競一句，心中甚是羨慕。……繼祖不敢違拗，回家又過了數月，夫妻要往岳家慶壽，臨行辭父母道：“兒此番不回来了，要在三泊居住。”因將前日在叔父處欣慕的話，說了一遍，曾孝蹙著雙眉道：“此事恐行不得，爾叔父上年在家。我與他屢次結怨，彼此有仇，恐爾不能久居。”繼祖道：“父親慮之太過。二叔真聖賢也，兒往，決無猜嫌。父即不允，兒今日說過，終久是要逃去的。”(《刪定二奇合傳》의 〈曾孝廉解開兄弟劫〉)

友于)는 서사 구조에 있어서 문아한 표현이 주를 이루고, 작품의 말미에는 구체적인 평론을 첨가함으로써 저자가 작품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반면에 화본소설인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과 〈曾孝廉解開兄弟劫〉은 ‘入話’, ‘正話’, ‘篇尾’의 전형적인 화본소설 형식을 따르고 있고, ‘入話’의 편폭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入話詩’ 해설의 생략과 삽입, ‘入話議論’ 서술의 강약, ‘入話故事’의 유무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正話’는 줄거리의 진행이 주를 이루고, 문미에는 모두 ‘篇尾詩’로 종결하고 있다.

서사내용에 있어서의 ‘답습’, ‘확대’, ‘축소’는 《聊齋志異》의 〈曾友于〉가 이후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며, 화본소설로 재창조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醒夢駢言》의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은 전체적으로 《聊齋志異》의 〈曾友于〉를 답습하거나 축소하기보다는 확대한 경향이 강하고, 《刪定二奇合傳》의 〈曾孝廉解開兄弟劫〉은 확대한 경향보다는 답습과 축소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醒夢駢言》의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은 문언소설인 《聊齋志異》의 〈曾友于〉를 화본소설의 형식과 단편소설의 짜임새를 가지고 재구성하였으며, 복잡한 사건 전개, 인물의 내·외적 묘사, 다양한 수사기교 등을 운용하여 더욱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반면에 《刪定二奇合傳》의 〈曾孝廉解開兄弟劫〉은 원작의 내용과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내용을 더욱 확대하여 새로운 사건이나, 인물을 삽입하기보다는 《聊齋志異》의 〈曾友于〉의 내용을 답습하거나, 혹은 《聊齋志異》의 〈曾友于〉에서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삭제하였다. 그러므로 〈曾孝廉解開兄弟劫〉은 서사내용의 전개에 있어서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보다는 〈曾友于〉에 충실하고 있기 때문에,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 보다 더욱 〈曾友于〉에 근접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의 형식에 있어서도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 보다 화본소설의 전형적인 구조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曾友于〉의 내용을 확대하고, 유사한 형식으로 다름을 추구했던 〈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參考文獻】

- 關德棟 輯校, 《聊齋志異話本集》, 齊魯書社, 1991年.
- 李忠昌, 《古代小說續書漫話》, 遼寧教育出版社, 1993年.
- 黃大宏, 《唐代小說重寫研究》, 重慶出版社, 2004年.
- 한국중국소설학회 편, 《중국소설사의 이해》, 학고방, 2009년.
- 이진우, 《唐 傳奇를 '재창작'한 《三言》의 '통속화' 연구》,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0년2월.
- 張光興, 〈蒲松齡與中國的“孝”文化傳統〉, 《聊齋志異研究》, 1997年第1期.
- 王恒展, 〈淺論《聊齋志異》與話本小說的關係〉, 《蒲松齡研究》, 1997年第2期.
- 陳泳超, 〈《醒夢駢言》摹襲《聊齋志異》考〉, 《明清小說研究》, 1997年第3期.
- 顧青, 〈《醒夢駢言》·二考〉, 《文學遺產》, 1997年第6期.
- 丁曉昌, 〈試論《醒夢駢言》取材於《聊齋志異》〉, 《南京師大學報》, 1999年第3期.
- 方兆平, 〈略論《醒夢駢言》對《聊齋志異》的改編〉, 《語文學刊》, 2008年1月.
- 鄒宗良, 〈《醒夢駢言》與吳方言—兼論蒲松齡不是該書的作者〉, 《蒲松齡研究》, 2009年第2期.
- 李軍鋒, 〈試論宋元話本小說對《聊齋志異》的影響〉, 《西昌學院學報·社科版》, 2010年3月.
- 陳文新, 〈從宋元話本到《聊齋志異》—論講唱文學對文言小說滲透〉, 《學術交流》, 2010年7月.
- 조영규, 〈《三言》 故事의 淵源 및 影響考〉, 《中國學報》第21輯, 1980년.

【中文提要】

在中國古代小說發展過程中, 大量出現了編輯或續寫以前的作品, 或因受到了原作的影響, 而大量創作出內容與結構上相似的作品. 不過, 在作品文體上, 文言文改爲白話文的再創作作品相當稀少. 明清小說作品有時以文言文來編寫, 但大部分的作品皆以當時流行的白話文來寫作. 古代民間小說與唐傳奇小說, 都以文言文來創作, 宋元話本小說與明清小說都以白話文來創作. 清文言小說《聊齋志異》的「再創作」, 卻與其他作品的改寫過程, 具有不同的特徵. 就

作品整個情節與表達形式而言，仍然沿襲了原作梗概與文體，並在細節描寫與人物刻畫方面，大量插入或省略了許多內容與人物。在中國小說史上，以同樣的作品來改寫不同文體的作品，實為百不遇一之事。在《聊齋志異》中以現實內容為中心的十二篇作品裡，〈曾友于〉在對於文言小說與白話小說的比較研究上，有著十分重要的價值。尤其是被改寫的《聊齋志異》作品中，在《醒夢駢言》與《刪定二奇合傳》裡共同被選錄的〈曾友于〉，就顯明突出「重寫(改寫)」的敘事特徵。因此筆者將以《聊齋志異》中的〈曾友于〉為基礎，就與《醒夢駢言》中的〈逞兇焰欺凌柔懦 釀和氣感化頑殘〉、《刪定二奇合傳》中的〈曾孝廉解開兄弟劫〉互相比較，詳細考察敘事內容與描寫的不同之處，並考究多元複雜的修辭技巧，闡明了其與敘事美學的關係。

【主題語】

再創作, 改寫, 敘事結構, 曾友于, 聊齋志異, 醒夢駢言, 刪定二奇合傳

투고일: 2011. 4. 19 / 심사일: 2011. 4. 25~5. 6 / 게재확정일: 2011. 5. 13